

동북아 최고의 국제비즈니스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를 IT·BT·물류·관광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바꾸겠습니다.

홍콩·싱가폴·상해, 그리고 두바이를 능가하는, 대한민국 대표경제특구.

IFEZ가 동북아시아 최고의 국제비즈니스도시로 태어납니다.

Business Utopia,
IFEZ



2008. 3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Good Morning Incheon

인천광역시

고래! 천마터널로 가자!



기존의 우회도로인 원적산길과 천마터널을 통해서 백마장 사거리에서 석남1고가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도로	천마터널	원적산길	차이
거 리	2.3km	4.1km	1.8km
소요시간	2분 정도	12분 이상	10분 이상
신호등	2개	13개	11개
연 비	10Km/ℓ 이상	4.2Km/ℓ 이하	5.8Km/ℓ
유류비	377원	1,601원	1,224원
통행료	800원	0	800원
계	1,177원	1,601원	424원

※ (주) 본 자료는 특정일, 특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실측한 자료입니다.
(배기량은 2000cc 연비 10km/ℓ 휘발류 승용차 기준임)

부천 ↔ 중동IC ↔ 삼산지구 ↔ 부평
구청 ↔ 대우자동차 ↔ 백마장 ↔
천마터널 ↔ 석남동 ↔ 가정동
↔ 서인천IC ↔ 북항 ↔ 청라도 ↔
영 종 도 ↔ 인 천 공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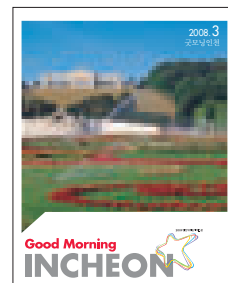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 133-8
Tel. 032)508-6891 Fax. 032)508-6896

Good Morning INCHEON

| 세 | 계 | 일 | 류 | 명 | 품 | 도 | 시 | 인 | 천 |

2008. 3



표지에 담는다 _____
세계 명품도시 ③ 오스트리아 비엔나(사진 이형준)

CONTENTS

March 2008 통권 171호

Fly Incheon_

- 04 글로벌 인천
- 12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 14 파이팅 인천
- 21 Fly Incheon 뉴스
- 25 군·구 소식
- 26 시의회 소식
- 28 시의회 Zoom In
- 30 살기좋은 인천
- 36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③
- 58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우리는 하나 Wonderful Incheon
120개 국제도시의 '재발견'
인천유나이티드 FC
'싱가포르 전 총리 방문' 외
'대·소 무의도 연결' 외
'문화재관리 특별소방안전 대책' 외
인천광역시의회 향만특위 운영
대중교통 첨단시설
봄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비엔나'
인천대공원

Incheon Life_

- 06 봄, 인천산에 오르다
- 08
- 10
- 16 인천을 걷다
- 20
- 40 이달의 공연
- 41 Incheon & Arts
- 42 시립예술단 봄맞이 공연
- 44 함께 사는 인천
- 52 Info Box
- 59 지상박물관

① 강화 고려산
② 도심의 산 & 섬 속의 산
③ 등산용품 거리
① 인천대공원 ~ 수도권해양생태공원
② 바른 걷기, 스윙워킹
'여섯 남자와의 발랄한 데이트 퍼니밴드' 외
줄리안 라클린 바이올린 · 비올라 독주회
'시립무용단 i-dance 2008' 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국 자매 · 우호도시 한인회에 책 보내기 운동' 외
각국조계석

Incheoner_

- 27 모닝인터뷰
- 34 모닝커피 한 잔
- 35 김치찰락
- 46 인천역사 책갈피
- 48 만화로 보는 인천인물 열전 ③
- 50 독자글마당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위원장
아이들 눈 속에 비친 우리의 미래
'희망 출발 썰매 출발' 외
향교도 최초, 초등 신교육도 최초
역사의 풍랑 속에 핀 희망 '삼연 광상훈'
'산행시합' 외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 광고문의 (032-440-2042)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8년 3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김진택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정경숙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정원(시 공보관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 김정석(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해동종합기획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Wonderful Incheon!

우리시는 동북아의 허브를 넘어 세계 일류 명품도시를 꿈꾼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으며 세계 속에 인천을 널리 알리고 있다. 최근 그 일환으로 진행된 주한외교사절 정월대보름 전통문화 체험과 이탈리아 밀라노 시장 방문 소식을 전한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하장원 시공보관실

외교사절, 한국전통문화에 푹~

지난 2월 21일 인천의 유형문화재 1호인 인천도호부청사에서 ‘정월대보름 전통문화 체험 축제’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40여 개국 70여 명의 주한대사와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우리시에서 대규모의 외교사절을 초청해 전통문화 체험 축제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축제에 참석한 각국의 대사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연날리기, 떡메치기, 부럼 깨기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안상수 시장은 이날 각국의 대사들에게 “정월대보름은 한해의 복과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이 떨쳐지기를 바라는 한국 고유의 민속축제”이라며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세계의 평화를 기원했다. 이에 다토 엠 산타나나반(Dato' M. Santhanababan)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는 행사에 참석한 외교사절을 대표해 “인천은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다문화 도시이자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동북아 최고의 국제도시”라며 우리시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인천시민 모두 올 한해 액운을 떨쳐내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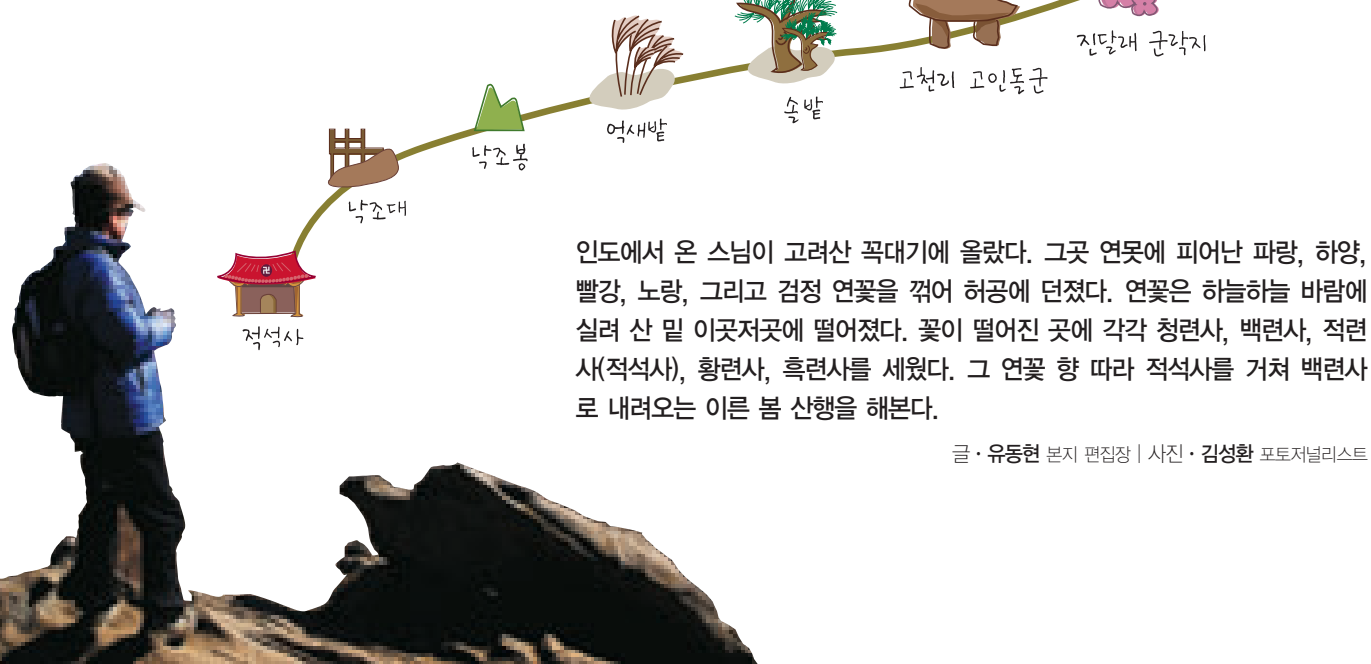
지중해를 건너 꽃핀 우정

우리시와 이탈리아 밀라노(Milano)시가 두 손을 맞잡고 동반자의 길을 걷는다. 지난 2월 18일 레티치아 모라티(Letizia Moratti) 밀라노 시장 일행이 우리시를 방문,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의 주도(州都)인 밀라노는 세계적인 패션도시로, 유럽 패션시장의 25%를 차지할 만큼 이탈리아 패션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안상수 시장과 모라티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참가와 2015 밀라노 월드엑스포 유치협조에 공통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밀라노시는 2015년 월드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터키 이즈마르시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두 도시는 또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피에라 밀라노(Fiera Milano SPa)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피에라 밀라노는 세계적인 전시마케팅 회사로 영종도에 들어서는 인천전시장의 건립·운영사업과 관련해 예비협약과 추가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주세페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우리시에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베르디 국립음악원은 1808년 나폴레옹이 설립한 전문 음악인 양성 교육기관이다. 베르디 국립음악원장은 이미 안 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두 도시가 동반자 프로젝트를 탄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국립음악원의 한국 분원 건설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모라티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송도신도시 현장을 둘러보며 U-씨티, IT, BT 등 종합 거대 도시의 개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리고 두 도시 간에 자매우호도시를 맺는 등 협력체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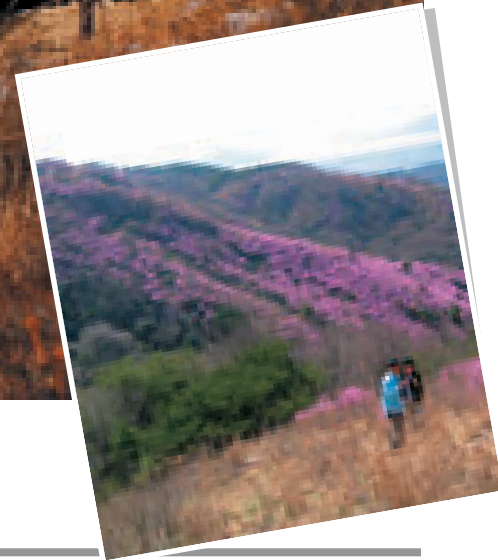


연꽃 향 따라 오르樂 내리樂



인도에서 온 스님이 고려산 꼭대기에 올랐다. 그곳 연못에 피어난 파랑, 하양, 빨강, 노랑, 그리고 검정 연꽃을 꺾어 허공에 던졌다. 연꽃은 하늘하늘 바람에 실려 산 밑 이곳저곳에 떨어졌다. 꽃이 떨어진 곳에 각각 청련사, 백련사, 적련사(적석사), 황련사, 흑련사를 세웠다. 그 연꽃 향 따라 적석사를 거쳐 백련사로 내려오는 이른 봄 산행을 해본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4월, 연분홍 꽃자수 놓는다

고려산은 봄에 진달래, 가을에 억새로 즐거움을 주는 산이다. 4월 하순에 접어들면 산 허리부터 정상 부근까지 어른 키보다 웃자란 진달래가 연분홍 꽃자수를 놓은 듯 군락을 이룬다. 이즈음 진달래축제가 고려산 일원에서 열린다. 주행사장인 고인돌광장에서 강화무형문화재 공연과 함께 60년대 재래시장을 재현하는 시골장터가 열려 강화의 멋과 맛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풍물놀이, 각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된다.

빨간 연꽃은 산 남서쪽 중턱에 떨어졌다. 적석사는 고려산 7부 능선 정도에 자리 잡고 있다. 승용차를 이용해 적석사 주차장까지 오르는 길은 마치 놀이동산의 바이킹을 탄 기분이 들 정도로 아찔하다. 가파른 길 덕분에 적석사에서 출발하는 고려산(436m) 산행은 그만큼 수월하게 시작하게 된다.

절 마당을 지나 뒤편 산길을 3, 4분 오르면 낙조대가 나온다. 이곳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동해 정동진의 정반대 지점으로 '정서진'으로 불리기도 한다. 덕분에 일몰 감상의 최적지로 꼽힌다.

10여 분 정도 더 오르면 고려산의 한줄기인 낙조봉에 다다른다. 그곳에 오르면 일망무제(一望無際)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가깝게는 석모도와 교동도가 한눈에 보이고 영종도와 덕적도의 자태도 가느다랗게 뜬 실눈 속에 들어온다.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 억새밭이 넓게 펼쳐진다. 매년 가을이 되면 사람 키보다 큰 억새들이 군무를 펼치며 산행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양쪽으로 뻗은 솔밭 길을 오르락 내리락 가다보면 나무 펜스로 둘러쳐진 고천리 고인돌군을 만나게 된다.

이제 조금만 발걸음을 옮기면 고려산 정상. 그러나 산 정상에는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어 최정점에 오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 섭섭함은 부대 밑 벼랑 끝에 설치된 널따란 나무데크에서의 조망으로 충분히 상쇄된다. 바다뿐만 아니라 북녘 땅을 뚜렷이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거칠 것이 없는 뷰포인트다. 4월말이 되면 조망대 밑으로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어나 산행객들의 가슴에 불 하나씩을 지피는 곳이기도 하다. 하산 길은 군부대의 아스콘 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백련사 뒷산 오솔길로 접어들면 된다. 절 마당에 들어서면 그윽한 차향이 산행객들을 유혹한다. 마당 끝 산기슭에 있는 찻집에 들러 투박한 질그릇 찻잔에 담긴 뜨끈한 대추차나 쌍화차를 마시면 3시간 남짓한 산행의 피곤함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

※ 산행은 역순으로 해도 좋다. 승용차를 출발지에 세워 놓고 가면 왕복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는 도착지에서 콜택시(☎ 933-7878)를 불러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방법이 있다.

묵은 숨 토해내고 봄기지개 ‘활짝’

봄이다. 앞산의 진달래가, 뒷산의 개나리가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우리 인천엔 이름난 명산도 많고 가볍게 오르기 좋은 아담한 뒷산도 여럿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봄맞이 하러 우리 동네 산에 올라보자.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계양산

인천을 품에 안은 계양산

해발 395m로 인천시내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유난히 진달래가 많이 피어 봄 산행으로 아주 멋진 곳이다. 정상에 오르면 사방이 탁 트여 서쪽으로는 영종도와 강화도 등이, 동쪽으로는 김포공항을 비롯한 서울 시내가, 북쪽으로는 고양시가, 남쪽으로는 인천시내가 내려다보인다. 계양산성과 고려시대의 학자 이규보가 거처하던 자오당터와 초정지가 남아있다.

미추홀의 시작 문학산

연수구 연수동, 청학동 및 남구 문학동, 관교동, 학익동 등에 두루 걸쳐 인천 중심부에 우뚝 솟아 있다. 선학동 윤성아파트에서 출발해 옥련동 시립사격장까지 가는 코스를 택하면 문학산과 한뿌리라 할 수 있는 연경산과 노적봉까지 종단할 수 있다. 문학산을 오르는 길에는 흰 돛을 단 문학경기장의 보습과 인천 앞바다의 풍경, 그리고 송도국제도시의 위용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산을 오르는 길 중간 중간에 문학산성의 흔적이 남아있어 인천의 역사를 기늩해 볼 수 있다.

문학산

인천의 미래 굽어보는 청량산

시립박물관 뒤편을 통해 산을 오르며 어디서든 아래를 굽어보기만 하면 서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하루가 다르게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마천루. 그 곳이 바다에서 시작해 매립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달라지기까지 변화무쌍한 모습을 묵묵히 바라본 것도 청량산이다. 또 멀리로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지구를 잇는 인천대교의 상판이 놓인 것까지 눈 앞으로 잡아당겨 볼 수 있다.

형형색색의 빛을 품은 월미산

월미도 중앙에 솟아있는 월미산은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오랜 기간 출입이 금지된 덕분에 다양한 수종이 어우러져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오르는 길은 가파르지 않고 산책로 중간 중간에는 데크가 마련돼 있다. 데크에서 내려다보면 인천항에 닿을 내린 배들이 코앞으로 쭉 다가온다. 월미산 정상에는 높이 24m자리 전망대가 우뚝 서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360° 회전하듯 빙 둘러 인천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

민족의 영산 마니산

강화도의 최고봉 마니산은 우리민족에게 의미 있는 산으로, 해발 468m 정상에 단군이 하늘에 제를 올린 참성단이 있다. 마니산 동쪽 기슭에는 신라 선덕여왕 8년 회정선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인 정수사가 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아담한 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살로 꼽히는 대웅전 문창살(보물 제161호)이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일출의 환상 맛보는 덕적도 비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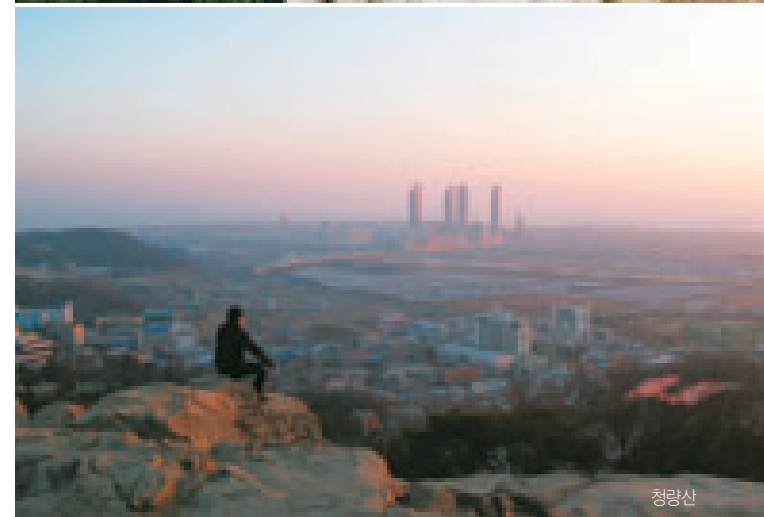
덕적도 비조봉은 292m 높이의 산으로 육지에서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천하를 내려다보기에 충분하다. 비조봉 꼭대기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면 남으로는 태안반도가, 서쪽으로는 망망대해가, 북쪽으로는 소연평도가 아주 희미하게 보인다. 그리고 동쪽 끝으로는 인천끝자락인데, 비조봉의 해는 그곳에서부터 솟아오른다. 정상에서의 일출과 낙조는 보는 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을 각인시켜 비조봉은 두 번 올라야 제 맛이 난다는 말이 전해진다.

국운을 기원하며 나라 생각하는 자월도 국사봉

자월면사무소 옆길로 오르기 시작해 임도를 따라 오르면 큰마



호룡곡산



청량산

을해변부터 장골, 그리고 하늬곶에 이르기까지 무의도의 동서남북을 눈으로 쭉 훑을 수 있다. 등산로는 계단식으로 잘 다듬어져 있어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정상에 닿는다. 정상에는 국사봉 정자가 있어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 준다.

서해의 알프스 무의도 호룡곡산 국사봉

춤추는 선녀의 옷을 닮았다는 무의도에 위치한 호룡곡산(246m)과 국사봉(230m)은 서해의 알프스라 칭할 만큼 절경이다. 샘꾸미선착장 마을 뒤쪽길로 산에 오르면 무의도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산길로 접어들면 왼편으로 바다가 펼쳐지고 소무의도와 무인도 해녀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산꼭대기 바로 못미처에는 '마당바위' 등 기암괴석이 자리를 잡고 있고 정상에 오르면 팔미도의 하안등대, 강화 교동도, 비운의 섬 실미도를 감상하며 가쁜 숨을 고를 수 있다. 🌸



그 거리에 서면 ‘야호’ 소리 절로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어느새 코끝을 간질이는 향긋한 봄바람이 계절을 재촉하는 때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주고 싱그러운 봄향기를 맡기에는 등산만한 것이 없다. 최근에는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벼운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 간단한 산행이라는 이유로 운동화를 신은 채 산에 오르는 초보 등산족도 종종 눈에 띄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갖추고 산에 오르려는 사람이라면 찾아가볼 만한 곳이 있다. 일명 동양장사거리(승기사거리)에서 시티은행 경인지역본부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국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점포들이 모여 있어 등산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어렵지

않게 자신에게 맞는 등산용품을 고를 수 있다. 이곳에 등산용품 전문 브랜드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 5월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인천 구월점을 오픈하면서부터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눈에 잘 띄는 데다



교통이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점포 임대료도 적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K2 민석경 점장의 설명이다. 당시에는 우리 인천에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이 많지 않았는데다 K2 본사와 구월점에서 열심히 홍보를 한 덕분에 점포 앞 도로에는 자동차가 즐비하게 늘어서곤 했단다. 뒤를 이어 영원프라자가 맞은편에 문을 열었고 속속 이름이 알려진 아웃도어, 등산용품 브랜드들이 하나 둘 오픈해 지금은 10여개 매장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덕분에 이 거리에서 등산용품이나 인라인스케이트, 낚시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스포츠용품 브랜드와 상점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K2 민석경 점장은 “처음에는 우리 브랜드만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여기 등산용품점 많다는 것이 입소문으로 알려져 더 많은 손님들이 찾는 것 같다”며 “굳이 등산복이 아니더라도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어르신들 취향의 옷이 많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이렇듯 등산용품 전문점들이 밀집해 있다보니 찾아오는 고객들도 특정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해 있는 다른 브랜드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것은 물론이다.

각 점포에는 의류를 비롯해 신발, 장갑부터 보온병에 이르기까지 등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 또한 이들 점포에서는 인천지역의 동호회나 산악회의 산행정보지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등산을 맘 먹고도 혼자서는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들이라면 ‘검증된’ 산악회나 동호회의 산행에 동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때 유명 브랜드를 만나려면 서울로 가거나 백화점을 찾아야 했지만 이처럼 같은 품목의 점포들이 밀집하는 거리가 생겨 우리 인천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이 봄 이 곳에 들러 적당한 등산장비를 갖추고 새 기운을 받으러 봄 산에 올라보자. 🍀



민석경 점장이 추천하는 등산용품 갖추기

- **티셔츠·바지** : 땀을 발산해 주는 기능을 갖춘 기능성 티셔츠와 땀 배출이 되는 스판 바지는 기본이다. 기능성 티셔츠를 입을 때 주의할 점은 면 소재의 속옷은 금물이라는 점. 속옷을 입지 않거나 기능성 속옷으로 갖춰 입는다.
- **조끼** : 소지품을 넣을 수 있게 주머니가 많이 달린 조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방풍과 방수가 잘 되는 조끼를 고르면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자켓·바람막이 점퍼** :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는 소재로 땀 발산을 잘 해 주는 옷을 고른다. 고어텍스 소재의 방수자켓을 고르면 여름에는 우비대용으로, 겨울에는 체온 유지용으로 유용하다.
- **등산화** : 등산화를 구입할 때는 발이 부어있는 오후 시간을 선택하는 게 기본이다. 반드시 방수가 잘되는 소재로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고

른다. 사이즈는 등산용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원래 신는 신발보다 5mm정도 크게 좋다. 등산화가 발에 딱 맞으면 산에서 내려올 때 발끝이 앞으로 쏠리면서 마찰이 일어나 발이 아파게 된다.

- **모자** : 햇볕에 피부가 그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모자를 고르되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챙이 짧은 모자가 좋다.
- **스티크** : 등산을 하느라 힘들 때 보완기능을 해 주어 '또 다른 다리'라고 불린다. 무릎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이나 어르신들께는 꼭 필요한 장비다.
- **배낭** : 물과 간단히 체력을 보충해줄 간식, 자켓 등을 보관하는데 필요하다. 여성은 20~25L 남성은 30L가 기본이다.

문의 : K2 인천구월점 ☎ 423-0053

120개 국제도시의 ‘재발견’

우리시가 80일간의 지구촌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꿈이 있는 도시는 새롭다’는 주제로 내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 동안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 전역에서 열리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다. 도시의 발전과 진화에 대한 고찰, 도시 발전의 원동력과 리더십 연구, 도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미래도시상 제시, 도시 마케팅을 위한 장으로서의 엑스포를 구현할 것이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세계 최초로 ‘도시’를 주제로 하는 이번 엑스포에는 전 세계 200여개 도시와 100여개 글로벌 기업, 30여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토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UN 등 엑스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국제기구, NGO, 정부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를 주제로 한 엑스포이니 만큼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참여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지난달 11일 우리시는 이탈리아 · 일본 등으로 3개의 참가도시 유치단을 동시에 파견했다.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모두 120개 해외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 한 것이다.

120개 도시 유치 목표

우리시의 적극적인 유치노력 덕분에 2월 현재 참가의사를 밝히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도시는 29개에 이르고 13개 도시도 참가희망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지금까지 엑스포참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도시는 미국의 앵커리지 · 버뱅크 · 호놀룰루 · LA와 중국의 하얼빈 · 단둥 · 경덕진, 일본의 기타큐슈 · 하마마츠, 베트남의 네안성 · 하이퐁, 루마니아의 몰도비타 · 비에르탄 · 캄피아투르지 · 길라우 · 그레이시, 멕시코의 메리다, 인도의 콜카타, 몽골의 울란바토르 · 에르데네트 · 초이발산 · 다르칸 · 올기이 · 사이샨드 · 모론 · 울란곰 · 코브드 · 올리아스타이 · 달란잔가드 등이다. 이밖에도 미국의 시카고 · 산호세 · 샌프란시스코 · 산타클라라 · 오스틴 · 시애틀 · 뉴욕 · 엘바인 · 솔트레이크 · 휴스턴과 중국의 천진, 아프리카 가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미 여러 도시가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우리시는 세계 유명 대도시가 아닌, 의미 있는 도시들, 전 세계 도시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도시들을 이번 엑스포에 유치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나라 이름인 아랍에미리트보다 더 유명한 도시인 두바이라든가 수도인 카이로보다 더 상징적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들이 대상이다. 이밖에도 성장 잠재력과 지명도, 특색있는 전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도시를 유치해 ‘도시’ 엑스포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엑스포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맞춤전략으로 ‘대표’도시 유치

해외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맞춤 전략’도 세웠다. 대상도시의 니즈(Needs)를 정확하게 예측해 제시하는 것이다. 상해의 경우 2010년 상해 엑스포 홍보와 푸둥지구 10년 발전 과정 소개를 연계해 초청하고, 미국의 뉴욕시는 2007년 발표한 ‘This is New York-2015년까지 5억 관광객 유치’ 정책과 연계해 초청하는 것 등이다.

도시엑스포에 참가하는 120여개 전 세계 도시들은 참가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세계 도시관에서 방문객과 만나게 된다. ‘볼거리’들이 집중되는 주행사장은 송도국제도시 제3공구 50만㎡의 부지에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이곳에는 인류문명의 발달과 도시의 진화상을 보여주는 도시문명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미래도시의 비전을 보여주는 주제영상관, 서로 다른 문화들이 어울리는 월드컬처빌리지 등이 들어선다. 120개 해외도시 등 200여개 참가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세계도시관과 한국도시관, 100여개 글로벌 기업 및 30개 국제기구를 위한 기업관,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도약상을 보여주는 인천관 등도 운영된다. ♡





올해, 우리가 간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제공 · 유나이티드FC



지난 해는 인천 연고 프로구단의 활약이 눈부셨다. 프로야구에서는 SK와이브스가 2000년 창단이후 첫 우승을 차지했고, 프로축구에는 인천유나이티드 FC가 K-리그 컵 대회 등에서 4강에 올랐다. 올해는 K-리그를 준비하는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각오가 새롭다. 올 시즌은 프로축구 14개 구단의 전력 평준화로 정상등극을 향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천 구단은 지난해 FA컵과 K-리그 컵 대회에서 4강에 오른 여세를 몰아 올 시즌은 정규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한 달 간의 캄 전지훈련을 비롯해 혹독하지만 뜻깊은 겨울을 보낸 그들이다.

공격 · 미드필더진 탄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축구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장외룡 감독이 이끄는 인천선수들은 한 달 동안 캄 전지훈련에서 하루 세 차례씩의 강 훈련으로 체력을 다졌다. 일본 J-리그 팀들과 가진 6차례 연습경기에서는 2승2무2패(9득점 7실점)의 좋은 성적을 거두며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을 높이는 등 탄탄한 전력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달 18일 전남 영광으로 전지훈련을 떠나 이달 8일부터 시작하는 올 시즌 K-리그를 대비하는 마무리 담금질을 했다.

2008시즌 인천의 공격은 용병 보르코가 선봉에서 이끈다. 새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세르비아 용병 보르코는 스피드 있는 드리블과 빠른 슈팅감각으로 캄 연습 경기에서 3차례 출전해 2득점을 올려 데얀의 이적으로 생긴 스트라이커 공백을 메워줄 기대주다. 여기에 김선우, 여승원, 강수일 등이 힘을 보탠다.

미드필드에서 중원장악의 특명을 해결할 주인공은 드라간과 김상록이다. 주장 임종용이 책임지는 수비진은 플레이코치로 승격한 김학철과 FC서울에서 데려온 이정렬이 상대팀의 공격을 '원천봉쇄' 한다.

젊은 피 수혈로 큰 일 낸다

올 시즌 인천은 어느 해보다 눈에 띄는 신인들이 많이 보인다. '2008 K-리그 신인선수 트래프트'에서 1순위로 뽑은 안재준은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 전국대학축구대회에서는 수비선수로 MVP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안현식은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주목받고 있다.

장외룡 감독은 "시즌 개막까지 양쪽 사이드를 집중 보완하고 다양한 팀 전술을 준비해 K-리그 첫 경기부터 좋은 경기 내용으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다.

이제 인천 시민들은 지난해 프로야구에 이어 올해 프로축구에서 인천이 정상에 등극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만 남았다. ♥



캄에서의 전지훈련 모습

인천유나이티드 2008 홈경기 일정

일자	시간	상대팀	대회구분
3. 16(일)	15:00	전남 드래곤즈	정규리그
4. 02(수)	20:00	경남 FC	컵대회
4. 13(일)	15:00	성남 일화	정규리그
4. 30(수)	20:00	제주 유나이티드	컵대회
5. 05(월)	15:00	부산 아이파크	정규리그
5. 14(수)	20:00	수원 삼성	컵대회
5. 24(토)	17:00	전북 현대	정규리그
6. 25(수)	20:00	부산 아이파크	컵대회
6. 28(토)	19:00	광주 상무	정규리그
7. 09(수)	20:00	FC 서울	컵대회
7. 12(토)	19:00	제주 유나이티드	정규리그
8. 23(토)	19:00	포항 스틸러스	정규리그
8. 30(토)	19:00	대전 시티즌	정규리그
9. 13(토)	17:00	경남 FC	정규리그
9. 20(토)	17:00	대구 FC	정규리그
10. 05(일)	15:00	FC 서울	정규리그
10. 19(일)	15:00	울산 현대	정규리그
11. 09(일)	15:00	수원 삼성	정규리그

※ 문의 :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https://www.incheonut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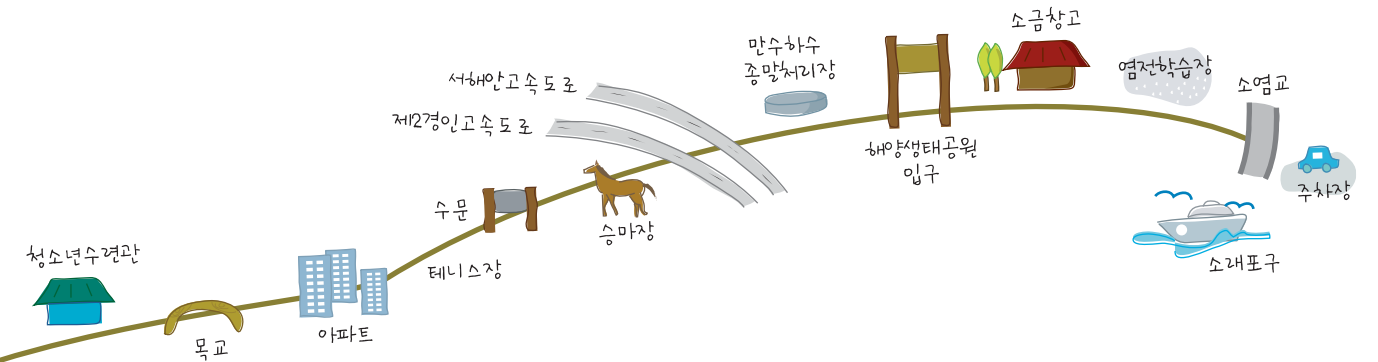


소금바람과 함께 걷는다

걷기는 육체적 도움뿐만 아니라 사유(思惟)의 힘도 키울 수 있는 운동이다. 인천 구석구석을 걷다보면 인천의 모습이 새삼 새롭게 눈에 들어온다. 크게 심호흡을 하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피부 깊숙이 스며들 것이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인천대공원은 사시사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이
다.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달리기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며 자연
을 벗 삼을 수 있는 곳이다. 이웃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은 예전에 소금을
생산하던 염전이다. 지금은 해당화와 갈대를 배경으로 소금창고가 흑백사
진의 한 장면처럼 운치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 곳이기도 하다.



① 인천대공원주차장 ~ 장수천 입구 (0.3km, 4분)

대공원주차장(주차료 2,000원)에 차를 세우고 남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흙
길 이 나온다. 도심에서 밟아보기 힘든 흙길이다.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흙
의 촉감을 발바닥에 전하며 위밍업을 해본다. 약 4분 정도 걸으면 개울과
만난다. 거마산과 관모산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에 있는 바다로 흘러가는 장
수천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활하수와 축산시설의 폐수로 코를 감쌀
정도로 오염이 심했는데 이제는 건강한 하천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② 장수천 입구 ~ 청소년수련관 ~ 진흥아파트 (1.0km, 15분)

실개천을 따라 걷는 산책의 맛은 색다르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
으면 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장수천을 왼쪽에 끼고
걸으면 건너편에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465-6827~8)이 나온다.
자연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공연
장, 도서관, 체력단련실은 물론 축구장, 농구장, X-게임장 등 다양한 시설
을 고루 갖추고 있다. 주공아파트 뒤편으로 곧장 가면 차도가 나오고 다리
(장수교) 밑으로 자전거 길이 이어진다. 그 길을 따라 가면 조그만 아치형
목교가 나온다. 이어 윗길과 아랫길로 나뉘는데 어디로 가든 발걸음은 다
시 만나게 된다.





③ 진흥아파트 ~ 담방마을 (0.7km, 11분)

진흥·현대·금호아파트를 따라 둔덕 숲길이 조성돼 있다. 곳곳에 벤치가 놓여 있어 장수천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장수천에 서식하는 물억새, 달뿌리풀, 갯벼들 등이 봄기운에 기지개 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장수천에는 곳곳에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나무데크가 설치돼 있어 쉬엄쉬엄 쉬어갈 수 있다. 하천변의 밭에서도 봄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바빠지고 있다. 소방서를 지나면 담방마을이 나오고 그 끝에 테니스장이 있다.

④ 담방마을 ~ 금정승마장 (0.4km, 7분)

테니스장을 지나 왼쪽으로 꺾어 하천을 따라 걸으면 수문이 나온다. 민물과 짙물이 만나는 곳이다. 사리가 되면 바닷물은 밀물과 만나 갯골을 따라 이곳까지 밀려들어 온다. 조금 더 걸으면 말뚝 냄새가 바람에 실려 온다. 말과 기수가 한 몸이 되어 자그마한 트랙을 힘차게 돌고 있는 금정승마장이다.

⑤ 금정승마장 ~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입구 (0.9km, 13분)

승마장 앞 고속도로 밑을 지나 '남동농협저온저장고'가 보이는 곳에서 철재다리를 건너야 한다. 철재다리를 건너기 전 갈대군락지의 운치 있는 모습에 이끌려 비닐하우스 쪽 길을 따

라 가면 엉뚱한 곳으로 접어드니 조심. 다리를 건너 700m 정도가면 다시 고속도로 밑이다. 이곳을 지나면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이 나온다.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하면 나무기둥으로 출입문을 만든 수도권해양생태공원에 다다른다.

⑥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입구 ~ 염전학습장 (1.1km, 16분)

이번 걷기의 하이라이트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435-7076)은 원래 소금밭이었다. 1934년부터 소금을 생산했으나 1996년에 폐염전이 되었다. 현재는 이곳의 일부를 염전학습장, 전시관 등으로 복원해 해양생태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책길은 독방길의 형태를 띠고 있어 사방의 시야가 좋다. 길 따라서 해당화와 갈대가 줄지어 있다. 특히 가을에는 코스모스길로 유명하다. 독방길이 지루하다면 소금창고들이 있는 아래쪽 길로 내려와 걸어도 재밌다. 중간에 소금창고를 개조한 '소래 옛모습 사진전시관'이 있다. 평소에는 문이 열려 있지 않아 아쉽다. 사전에 미리 예약해야 관람할 수 있다. 좁은 길로 계속 걸으면 염전학습장이 나온다.

⑦ 염전학습장 ~ 소염교 (0.3km, 6분)

염전학습장은 그나마 염전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시즌이 되면 말 그대로 학습용으로 소금을 생산한다. 바둑판 모양의 염전에서 바닷물을 퍼올리는 물레방아 모양의 수차(水車) 돌리기도 해볼 수 있다. 특히 소금을 채취하는 시간에는 염부들과 함께 직접 가래질을 하며 소금을 채취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학습장을 조금 지나면 봉어와 잉어들이 서식하고 있는 담수연못이 있다. 다리 쪽으로 향하면 맨발로 갯벌에 들어가 게와 조개 등 살아있는 생명체를 관찰할 수 있는 갯벌 체험장이 넓게 펼쳐져 있다. 걷기는 갯골에 놓여진 소염교를 걸으면서 마무리된다. 🐦

※ 거리와 시간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4
	3	

1. 장수천변 흙길
2. 아치형 나무다리(목교)
3. 대공원에서 해양생태공원까지의 길은 대체로 평탄하다.
4. 소금창고가 있는 폐염전길은 운치 있는 풍경이 계속된다.

한걸음 더 걸으면...



싱싱한 풍경, 소래포구

소염교를 건너 건너편 풍림아일랜드 쪽으로 길을 건너면 소래포구로 들어가는 아치가 보인다. 고가 옆으로 들어가면 포구에 다다를 수 있다. 소래포구는 삶의 냄새 물씬 나는 싱싱한 풍경이 있는 곳이다. 어시장에는 350여개의 어물전이 난장처럼 자리잡고 있다. 생새우와 육젓, 추젓 등 온갖 젓갈류를 싼 값에 그리고 푸짐하게 구입할 수 있고 사시사철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다. 소래를 찾는 사람들의 즐거움 중의 하나는 옛날 수인선 협궤열차가 운행되던 철교를 이용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예전에 어부나 염전 인부를 실어 나르던 120m의 바다 위 철교가 지금은 사랑을 이어 주고 있다. 철교 옆으로 땡구산이 있고 바다 쪽으로 장도포대(시 유형문화재 제19호) 공원이 조성돼 있어 여유로운 포구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발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걸어라~

느림의 철학자 피에르 상소가 말했듯이 걷기는 ‘우아하고 배려 깊은 삶의 방식’ 중 하나다. 지금, 발을 갑갑하게 조이던 구두를 벗어던지고 세상을 향해 걸자. 잊고 살았던 나와 세상의 존재감이 느껴지고 삶에 소소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도움말 · 정성렬 스워커 대표

사람들은 이제 걷지 않는다. 폭신한 흙이 덮여 있던 길에는 아스팔트가 깔리고 그 위를 자동차가 가로지른다. 땅 아래도 지하철이 점령한 지 오래다.

하지만 걷기는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물론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한다.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달에 몸무게 2킬로그램 정도를 감량할 수 있다. 또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혈압과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줄어든다. 근육과 뼈를 무리 없이 단련시키고 유연성을 키우는 효과도 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시속 4킬로미터로 일주일에 3~5번, 하루에 20~30분 정도로 걷기 시작해 점차 속도를 높이고 빈도를 늘려 보자.

걷기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먼저 제대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천 출신으로 국내 최초의 프로워킹 강사이자 세계 오래걷기 기네스 기록 보유자인 정성렬 스워커 대표는 “허리 회전 없이 무릎을 굽히는 걷기 방식은 체형을 무너트리고 관절에 무리를 주지만, 바른 보행은 사람의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음걸이가 바로 스윙워킹(Swing Walking)입니다”라고 말한다. 스윙워킹은 인간의 직립보행 형태를 이해하고 잘못된 보행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걷기법으로, 우리 몸이 허리 회전운동

을 중심으로 다리가 움직여 보행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데서 착안했다. 스윙워킹의 기본은 바로 서는 것이다. 양발의 간격이 골반보다 넓으면 배가 나오고 구부정한 자세가 되므로, 먼저 양발이 골반 안쪽으로 오도록 선다. 그리고 발의 간격은 5센티미터 정도로 평행을 유지하고 가슴은 넓게, 등은 곧게 편다. 마치 내 몸이 공중에 있는 줄에 매달려 있다는 느낌으로 몸을 쭉 펴는 것이다. 그리고 걸을 때 무릎을 굽히지 말고 똑바로 편 채 허리 회전에 의해 자연스럽게 걷는다. 🐦

신발이라고 다 같은 신발이 아니다! 걷기 전용신발, 스워커



바로 걸으려면 좋은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워커(Swaker)는 국내 최초의 프로워킹 강사인 정성렬 씨가 의사, 인체공학자, 보행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과 함께 개발한 걷기 전용신발이다. 세계 최초로 유동성 있는 6분할 바닥 구조로 제작하여, 걸을 때 체중이 몸에 미치는 영향과 지면에 부딪치는 충격을 최소화했다. 가격은 16만5천원에서 19만8천원 선이다. 제품은 연수2동에 있는 스워커 매장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문의 | 스워커 ☎ 1566-9858, www.swaker.com

Good Choice



싱가포르 前 총리 방문 아시아 경제협력 적극 논의

싱가포르 전(前) 총리를 지낸 고촉동(吳作棟) 선임 장관과 추아타이킹 주한 싱가포르 대사 등 싱가포르 대표단 일행이 지난 2월 23일 우리시를 방문했다.

싱가포르는 해상 동서교통의 거점에 자리 잡고 있어 자유무역항으로 발전했으며, 우리시와는 저비용항공사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협력을 하고 있다. 제2회 아시안리더십 콘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싱가포르 대표단은, 우리시를 방문해 안상수 시장과 두 도시



의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담을 통해 안상수 시장은 고 전 총리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에 싱가포르가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고 전 총리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과

국제대회 유치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싱가포르 대표단은 경제자유구역홍보관, 인천대교건설현장,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인천의 발전상을 확인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42

영종도에 항공산업단지 조성

올 연말 영종도 영종하늘도시에 가칭 ‘항공산업복합단지(Aviation Park)’가 착공에 들어간다. 우리시는 영종하늘도시 내 23만 5천㎡에 전 세계 항공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해 항공복합단지를 조성기로 했다. 계획에 의하면 시는 항공기 운항과 정비, 개조, 부품 연구 및 생산 등의 사업을 전담할 대규모 민수(民需)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또 전국 주요 거점 도시별 노선을 개발해 대규모 여객수송사업을 벌이고, 조종사 및 정비사 교육, 헬기 및 기기임대사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해외항공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외국어통역 봉사자 육성

우리시가 외국인을 위한 자원봉사자 발굴 및 육성에 나선다. 시는 총 사업비 2억9천 만원을 들여 외국인 관광객과 이주노동자, 원어민 강사, 해외기업인 등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통역 자원봉사자’를 육성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257명인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올해 2배가 넘는 500명, 2009년 6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오는 2014년까지 모두 1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의 전문자원봉사단에게 보수교육, 간담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오는 3월부터 외국어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73

‘인천방문의 해’ 사업 보고

‘2009 인천방문의 해’의 행사 및 사업내용이 결정되고 이에 대한 추진기획단이 구성된다. 지난 2월 21일 열린 관광진흥위원회에서 ‘2009 인천방문의 해’ 행사를 위한 4개 분야 43개 사업이 결정됐다. ‘2009 인천방문의 해’ 주요 사업은 송도석산 개발, 동양제철화학 우수지 운동시설 조성, 송도유원지 관광단지 조성, 송도지구 아트센터 건립 등이다. 우리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328억6천4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관계 공무원 및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들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2009 인천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67

몽골 체육부장관 일행 방문



몽골 나란바트로(Naranbaatar) 체육부장관 일행이 지난 2월 4일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양측 대표단은 몽골 국가대표 선수촌 건립과 관련, 주택건설협회가 추진하는 설계사항을 점검하고 인천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몽골의 진출여부를 타진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인천기업이 몽골의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나란바트로 장관은 인천기업의 진출을 적극 희망한다고 답하고, 송도 신도시 내 건설현장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몽골 방문단은 시청에 이어 지역 건설업체 대표자들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향후 양국의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45

도심~송도 연결 교량 8개 건설

2020년까지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 남동구, 중구를 연결하는 교량 8개가 건설된다. 계획에 따르면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와 4개의 교량으로 연결되며, 이미 개통된 송도1교(동막역~송도 2·4공구) 외에 송도2교가 연말 개통된다. 송도2교는 길이 544m, 왕복 8차선 규모로 송도 1·3공구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된다. 또 송도 1·3공구와 대우차판매 부지를 잇는 송도3교는 지난 2월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내년 8월 준공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 연구단지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미국 IBM과 가천길재단이 공동으로 바이오 연구단지를 조성한다. 바이오 연구단지는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바이오메디컬허브 내 13만 5천 600㎡의 부지에 3천560억원을 투입해 2011년까지 1단계 구축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신약 개발과 U-헬스케어, 나노테크놀로지, 메디컬이미지 등의 분야가 집중 연구된다. 인천경제청과 가천길재단, IBM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안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해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수학여행 인천유치 팸투어 진행



우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전국의 수학여행 담당교원 200명을 초청해 사전답사여행(팸투어)을 진행했다.

팸투어는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렸으며, 코스는 가스과학관, 강화도 고인돌·광성보·전등사, 송도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인천대교 홍보관, 중구 일대 개항 후 근대건축물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200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시에 수학여행을 온 학생은 전국 127개 학교 2만 492명에 이른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54

자원봉사자 50만명 네트워크

우리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수를 5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는 올해 각 주민자치센터 내 자원봉사센터를 44개에서 89개소로 늘리고, 자원봉사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체와 종교·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센터 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한만큼 다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며,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71

간선 급행버스 노선 결정

2013년 개통 예정인 청라지구와 서울 화곡역을 연결하는 간선 급행버스 노선 가운데 인천구간이 확정됐다. 간선 급행버스 노선의 인천구간은 출발점인 서구 중봉로에서 서쪽 방향으로 2km 가량 연장돼,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까지 이어진다. 또 정류장은 청라지구 상업지역, 가정택지개발지구, 가정뉴타운, 작전동 부근 등 대형 단지지역에 평균 1km 간격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문의 | 시 대중교통과 ☎ 440-3857

2·3급 장애인에 활동보조서비스

우리는 올 3월부터 전국 최초로 2·3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억4천600만원의 예산을 올렸으며, 이달 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2개소를 선정해 약 150명에게 월 최대 5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2

급 장애인 및 지적·자폐성장애 3급으로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장애인에게 제공된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64

‘국내입양활성사업’ 우수평가

우리의 국내입양활성화사업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2004년 국내입양활성화사업을 시작해 첫째 99명, 2005년 100명, 2006년 91명, 지난해 95명 등 총 385명의 입양아를 국내가정에 입양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우리시가 지자체 최초로 국내입양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입양활성화를 위해 자체 시책사업을 개발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722

송도국제도시에 인천 역사문화관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내에 인천 역사문화관 및 역사공원 조성이 추진된다. 인천의 역사·문화 자원 활용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해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 이전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인천 역사문화관은 송도중앙공원 또는 세계도시엑스포 주행사장 부지 1만6천500여㎡에 16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곳에는 강화 석기시대부터 백제·고려·조선·근대 개항기·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이르는 인천의 역사를 총망라하는 테마관이 들어선다. 또 인천역사공원은 송도중앙공원 내 6만6천여㎡에 조성되며 인천의 역사적인 인물들의 동상이 세워질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한국이민사박물관’ 5월 개관



우리나라 이민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월미공원에 문을 연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지난 2006년 7월 착공, 지난 2월 준공됐으며 오는 5월 개관할 계획이다. 박물관에는 시대별 이민사와 미국, 중국, 러시아, 중남미 등 해외 한인 사회의 성장사에 대한 자료, 유물 4천여점 등이 전시된다. 한편 미국 LA의 한인 기독교신문인 크리스천헤럴드사의 한국지사장이 지난 2월 12일 안상수 시장을 예방, 이민사박물관에 전시할 자료 2만1천여점을 무상 기증했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 440-4033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본 궤도

인천 송도유원지에 조성되는 ‘파라마운트 무비 테마파크(Paramount Movie Theme Park)’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2월 13일 안상수 시장, 대우차판매 이동호 사장, 파라마운트 마이크 발톡(Mike Bartok) 수석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파라마운트 무비 테마파크 라이선스 계약 체결 조인식이 있었다.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권, 상표권 등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이번 계약 체결로 파라마운트 무비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택시에 외국인 통역 시스템

올 3월부터 우리시의 모든 택시에 통역 시스템이 지원된다. 통역 시스템은 택시 운전자가 통역지원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면 통역 자원봉사자가 영어, 중국어 등 16개 외국어로 외국인 승객과의 의사소통을 돕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으로 차량용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고, 택시업체와 조합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통역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총 1만3천700여대의 일반 및 개인택시에 통역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54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설명회



우리시 재래시장의 식품안전을 높이기 위한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 설명회’가 지난 2월 14일 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어윤덕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재래시장 번영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 활성화 방안과 사업 홍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소비패턴이 점차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으로 전환되면서 재래시장이 침체 위기를 맞고 있어 마련된 자리다. 관계자들은 재래시장의 위생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재래시장으로 거듭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의 | 시 위생정책과 ☎ 440-2785

Fly Incheon news

‘항공행정협의회’ 개최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를 실현하기 위한 ‘항공행정협의회’가 지난 2월 15일 공항공사 중회의실에서 안상수 시장, 이재희 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저가항공사인 인천타이거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취항 지원 등의 현안 사항이 논의됐다. 한편, 안상수 시장은 항공행정협의회를 마친 후 이재희 공항공사 사장의 안내에 따라 시범운영 중인 제3활주로를 비롯해 계류장 시설 등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의 | 시 항만공항물류과 ☎ 440-3455

‘인천방문의 해’ 심벌마크 확정



지난 2월 21일 열린 ‘2009 인천방문의 해의 상징체계(CI) 개발보고회’에서 인천방문의 해의 심벌마크, 캐릭터, 슬로건 등이 확정됐다. 이날 발표된 심벌마크는 우리시의 희망(노랑), 꿈(파랑), 열정(빨강)을 상징하는 삼색의 링이 하나로 글로벌 인천을 상징하며, 슬로건은 ‘Come Together New Incheon’이다. 한편, 우리시는 인천방문의 해와 관련해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 관광객 편익증진, 시민참여 등 4개 분야에서 총 4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67

인천 지하철 2호선 연말 착공

인천시 지하철 2호선이 올해 말 착공된다. 우리시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계획 중인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은 올해 상반기에 차량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말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은 경전철로 건설되며 신교통 시스템인 림 방식을 적용해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가동된다. 구간은 서구 오류지구~검단신도시~검암지구~가정오거리~가좌동~주안역~인천시청~남동구청~인천대공원으로 총 연장 29.2km에 이른다.

문의 | 시 대중교통과 ☎ 440-3885

‘건강가정 지원 사업’ 추진

우리시는 지난 2월 12일 건강가정위원회를 열고 시가 올해 추진할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결정했다. 올해의 가족정책 사업은 가족돌봄의 사회화, 직장·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

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등 6개 영역이 추진된다. 세부 사업은 총 32개로 가정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694

‘도로먼지 오염지도’ 제작

우리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요 간선도로의 먼지 오염 실태를 표시한 ‘도로먼지 오염지도’를 제작한다. 시는 지난해 말 도입한 도로먼지 측정 차량을 이용, 다음달까지 101개 주요 간선도로의 구간별 먼지 오염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도로먼지 오염지도가 제작되면 이를 토대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부터 3개월마다 지도를 새로 작성해 먼지 저감대책 추진 효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문의 | 시 환경보전과 ☎ 440-3527

교육청소식

영어영재, 국외문화체험학습

인천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영어영재교육원 학생들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의 국외문화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왔다. 학생들은 방문기간 중 싱가포르 항만청에 들려 항만산업을 체험했다. 또 국제학교인 DCPS와 SAS를 방문,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수업을 참관하며 외국의 학교문화를 경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국외문화체험학습과 같은 학생교류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약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지난 2월 4일 영상회의실에서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을 연계·협력하고, 지역사회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인력, 시설을 상호 지원하고 실무자간 커뮤니티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의 | 인천시교육청 홍보팀 ☎ 420-8225

군·구 소식

중구 대·소무의도 연결

중구는 2011년까지 대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연결하는 길이 260m, 폭 4.5m의 연도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57억원이 들어가며 이중 70%는 국비, 20%는 시비 지원을 받게 된다. 연도교 연결사업은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의 | 중구청 ☎ 887-1011

동구 만석동 복합타운 조성

만석부두 일원에 복합타운 조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구는 만석동 복합타운을 개발하기 위해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구상안에 의하면 만석동 2의 5 일원 46만3천604㎡에 상업·업무·레저·문화·주거 타운을 조성하며, 예상사업비는 4천88억원이다.

문의 | 동구청 ☎ 761-0151

남구 폐기물 인터넷배출 신고

남구가 올 4월부터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제를 실시한다. 이는 장롱 등 대형 폐기물 처리 시 구 홈페이지에 접속, 폐기물의 내역과 장소를 입력하면 일정한 요일에 수거하는 방식이다. 수거 비용은 무통장 입금 형식이며, 접수결과는 SMS 문자전송시스템으로 신고자에게 통보된다.

문의 | 남구청 ☎ 887-1011



연수구 인천 평생학습관 개관

지난 2월 20일 연수구 동춘동에 평생학습관이 문을 열었다. 평생학습관은 1만4천500여㎡의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2층, 2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컨벤션홀, 어린이전용도서관, 어학실, 정보자료센터 등이 갖춰졌다. 향후 직업능력개발 및 노인교육, 시민교육 등 4개 분야 84개 강좌가 진행될 계획이다.

문의 | 연수구청 ☎ 817-1011

남동구 가정청소년에 교복지원

남동구는 올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중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구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된 이웃돕기 모금액 2천275만원으로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 교복을 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 남동구청 ☎ 466-3811

부평구 치매환자 보호센터 운영

지난 2월 19일 산곡동에 치매환자보호센터인 ‘산곡행복의 집’이 문을 열었다. 산곡행복의 집은 330㎡ 지상 3층 규모에 프로그램실, 휴게실, 운동실 등이 갖춰져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 | 부평구청 ☎ 527-5911

계양구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계양구가 관내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 급식비 지원에는 약 7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대상은 직영급식을 하는 관내 국·공

립학교와 보육시설이다.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계양구청 ☎ 551-5701

서구 모유수유 사랑교실 운영

서구가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모유수유 사랑교실’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키로 했다. 모유수유 사랑교실은 산모에게 수유방법을 개별 지도하는 것으로, 구는 올해 참가 인원 목표를 198회 2천300여명으로 잡고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기관을 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 서구청 ☎ 562-5301

옹진군 백령어린이집 신축

옹진군은 올해 백령어린이집을 건축할 전망이다. 어린이집에는 6억9천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1천342㎡에 건축연면적 331㎡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구는 지난 2월 설계용역을 실시했으며 오는 6월 중으로 공사를 시작해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문의 | 옹진군청 ☎ 899-2114

강화군 관·학 협력사업 추진

지난 2월 16일 강화군청에서 안덕수 강화군수와 민철기 인천전문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 협력사업 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두 기관은 향후 교육·체육·문화, 정책개발, 지역 주민 교육, 경제 활성화 및 취업 등 9개 항에 걸쳐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의 | 강화군청 ☎ 930-3114

시의회 소식

문화재관리 특별소방안전대책



문교사회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시 문화재 담당국장 및 소방방재본부장으로부터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는 국보 1호 승례문 방화사건과 관련, 인천 소재 205개 소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소방방재본부장은 이날 보고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화재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유관기관 상시 관리체제와 중요 문화재시설의 통제라인 등을 구축할 것을 보고했다. 이에 문교사회 위원들은 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훼손과 망실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몽골 경기장·선수촌 건설 지원

박창규 의장 일행이 지난 2월 18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 몽골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대표 선수촌 등 체육 시설 건설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나란바트로 몽골 체육부 장관의 공식 초청에 의한 것으로, 인천 대표단은 주택건설협회 및 몽골 정부, 우리시가 주축이 되는 몽골 국가대표 선수촌 및 종합경기장 건설 관련 MOU 체결에 참여했다. 시는 이와 관련 주택건설 협회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설계 및 기술 감리, 건축 노하우 등을 몽골 정부에 지원할 계획이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정책간담

산업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등 6개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수돗물에 미량의 불소를 첨가해 시민들의 구강보건과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날 간담회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개발사업에 주민 의견 경청

시의회가 ‘인천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킴으로써, 올 3월부터 시의 도시재정비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이 활발히 수용될 전망이다. 조례 적용 지역은 인천역·동인천역·제물포역·송의운동장·가좌 인터체인지 주변 등 도시재정비 사업지구 여덟 곳이다. 조례의 주 내용은 도시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협의회’에 해당지역 주민 대표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위, 안시장과 현안사업 논의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안상수 시장과 우리시 건설교통 분야의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안상수 시장과 건교위는 부평구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공영, 민영개발 여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그리고 연수구 동춘동 화물터미널 건설과 관련, 입지의 적정성을 의논하고 위치 변경 시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논란 등을 풀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그 외 계양구

미추홀 과학고 건립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서부산업단지, 친환경단지로 육성

인천시의회 강창규 의원이 지난 2월 26일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제6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안상수 시장과 박창규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3백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했다. 3년간의 임기수행에 들어가는 강 이사장은 “서부산업단지를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공존하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향후 운영계획을 밝혔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방안 강구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시 에너지정책과 등 에너지 및 재개발 관련 부서와 고유가시대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리시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 재개발사업 등 각종사업의 승인·확대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역난방 수요를 판단해 기존 열병합 발전소를 활용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 했다. 현재 우리시의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은 공항신도시, 송도국제도시, 계양구, 부평구 등이다.

문의 | 인천시의회 홍보팀 ☎ 440-6052



한 장의 사진 속에 가족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햇살처럼 눈부시게 웃고 있는 아이들과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인자한 남편. 사진을 보노라니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라는 노래가 절로 나온다. 사진 속 주인공은 바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위원장이다. 최 위원장은 딸 넷에 아들 하나, 아내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 여덟 명 대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26살 때 부인을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는 첫째부터 초등학교 4학년생인 막내까지 모두 다섯 명의 아이를 두었지요. 아이들이 많아서 힘들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오히려 저희 집은 아이들로 인해 그늘질 일 없이 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환한 미소를 머금고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얼굴에서,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최 위원장의 모습이 그려진다. 다복한 가정을 꾸리는 최 위원장인 만큼, 현재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에서도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제’를 시행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지요. 앞으로도 이 같은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이 꾸준히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다복한 가정의 행복한 인천 만들기

글·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그는 한 가족의 가장이자, 인천 시민들의 대변자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로 뛰어 온 지 10년,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초심(初心)은 지금도 흔들림이 없다. “지금까지 집행부와 협의 하에 예산을 확보하고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환경, 복지, 교육 분야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 간석역 일원 등 장기 침수지역 문제 해결, 학교급식 개선 및 다목적 강당 조성 사업 등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대한민국하면 인천이 떠오를 정도로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러한 꿈이 현실이 될 지는 앞으로 시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냥 사람 좋아 보이던 인자한 그의 눈빛에서 강한 신념이 엿보인다. 그 ‘당당한 자신감은 바로 자신을 믿어주는 행복한 가정이 원동력이 되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인천항 세계 바다로 항해한다

외항시대를 맞는 인천항은 이제 동북아를 넘어 더 큰 세계로 힘찬 항해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천항이 동북아시대의 중추 항만으로 세계의 바다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동북아 교류의 축, 인천항

우리는 동북아의 허브를 넘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진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천을 동북아 교류의 축이자 세계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육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인천항은 동북아 시대의 중추 항만으로 인천국제공항과 복합적인 물류 체계로 연계돼 있으며, 주변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는 등 대외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인천항은 현재 극심한 공해와 낙후된 항만의 이미지로 낙인되어, 황해권 교류의 거점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북항은 각종 원자재가 반입되며 일으키는 환경

오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책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또 정부차원에서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미흡하고, 항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 또한 열악한 실정이다.

향후 인천항이 북항, 남항, 인천 신항 등을 갖춘 외항시대를 맞게 되면, 내항은 산업항의 시대를 마감하고 해양 관광·레저의 복합항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항만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인천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천항 발전위한, 활발한 활동 기대

인천시의회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는 허식 위원장을 주축으로 지정구, 김용재, 노경수, 김성숙, 김소림, 배영민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08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이며 필요 시에는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 범위는 ▲ 국가적 항만 지원책 마련 촉구(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법 등 규제 철폐 및 항만 시설에 대한 재투자 등 정부지원 유도) ▲ 북항주변 오염방지 대책 추진(북항주변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보호시설 구축 등 대책 강구) ▲ 내항 친수공간 확보 추진(내항 기능의 이전 등에 따라 시민 여가활용 공간 등 친수공간 확보 추진) ▲ 인천 신항 조속 건립 추진(인천항의 기능 재배치 및 체선·체화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인 인천 신항의 조속 건립 촉구) ▲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타당성 검토 ▲ 선진 국제항로의 발전을 위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의 타당성 검토 ▲ 인천항 배후도로 확보 추진(물류 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배후도로 조성) ▲ 항만 연계 철도운송체계 확립 ▲ 남항의 위험 및 환경 오염 시설의 적절한 이전배치 논의 ▲ 영종 준설토 투기장 친수공간 확보 및 기타 인천항 선진화를 위한 발전적 모델 제시 등이다.

향후 위원들은 관계 기관 및 부서로부터 항만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또 대상지를 현지 시찰해 사업의 진행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국내외 선진항만을 시찰해 항만정책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토론회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관계인과의 간담회 등을 다각도로 개최할 방침이다.

세계의 바다에서 희망을 그린다

인천시의회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도시재생국, 건설교통국, 문화관광체육국, 도시계획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등 시 6개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의 주요 보고내용은 내항 재개발과 월미관광특구·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북항 개발과 북항 주변 오염방지대책, 인천신항 조성,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 등이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인천항을 화물 중심의 산업항에서 해양관광레저용 항만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용역발주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육상과 해상 교통이 멈추지 않고 전개되는 열차·페리 복합운송시스템의 구축과 인적교류 및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의 다목적 기능 항만을 조성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특위는 또 중앙정부에게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항만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도록 건의했으며, 클린 포트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 환경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인천항 오염방지대책을 마련, 내항 재개발 사업 및 구도심 재생사업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제, 인천항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드넓은 세계의 바다가 펼쳐질 것이다. 인천항을 우리시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희망으로 만들, 인천시의회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의 행보가 기대된다. ♡





살기 좋은 인천 | 대중교통 첨단시설

“540번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



산곡동에서 학익동으로 출퇴근을 하는 서정진 씨(27세·산곡2동)는 요즘 인천에서 회사 다닐 맛이 난다. 집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나와 좌석버스로 갈아타야 하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좌석버스의 요금환승 제도가 생기더니 요즘엔 버스 정거장도 깨끗하고 멋들어지게 변신해 편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버스 정거장에 버스도착안내기가 설치돼 버스를 기다리는 일도 지루하지 않고 버스를 골라 타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글·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버스 정보’로 골라타는 재미 듬뿍



지난해 4/4분기 현재 인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는 85만3천여 대로 자가용으로 이용되는 차만 80만 대에 이른다.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출퇴근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

람이 많지만 청소년이나 노인층은 아직까지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우리시는 올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주차시설 확충 및 주·정차문화 정착, 광역·도시철도·도로망 등 교통인프라 지속적 구축, 인천 세계도시엑스포 대비 쾌적한 교통 환경 정비 등을 중점추진방향으로 정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인다.

시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돕는 데는 올해 도입되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 BIS(Bus Information System)가 크게 한몫한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버스의 도착시간과 운행노선, 교통정보 등을 정류소에 설치된 안내기와 운행 중인 버스 내의 단말기를 통해 자막으로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시내 165개 노선, 2천259대 버스, 주요간선 정류장 515소 등 시내 전 노선을 대상으로 정류소안내기, ARS, 문자메시지, PDA,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노선버스의 현재위치와 도착예정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준다.

한편 버스종합상황실 BMS(Bus Management System)는 버스에 단말기를 부착해 버스운행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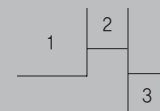
우리시는 지난해 BMS와 정류소안내기 115개를 설치해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정류소안내기 400개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BIS와 BMS는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시내버스노선안내, 버스 실시간 정보, 대중교통 빠른길 찾기, 환승 정보 등도 제공해 준다.

실제로 버스정거장에는 정류소안내기가 설치돼 시범 운영되고 있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은 안내기를 통해 내가

타려고 하는 버스가 어디쯤 지나고 있는지, 몇분 후 쯤이면 도착할지 알 수 있다. 버스 운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이 여러 개일 경우 버스를 기다릴 것인지 다른 교통편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게다가 부가적으로 기상정보 및 뉴스정보 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심리적인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효과도 있다.

한편 정류소안내기가 없는 곳에서는 노선번호 또는 정류소 ID를 입력하면 유무선으로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SMS, ARS, PDA 서비스도 제공돼 인기도.

BIS와 BMS는 우리시의 위탁을 받아 교통공사가 운영한다. 버스 운행정보 제공을 통해 버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난폭운전 등 차량운행을 감시해 예방하고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에도 활용된다. 또한 수집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앞으로 노선변경이나 배차간격 조정 등 버스 정책을 집행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다.



1·2. 버스도착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정류소안내기
3. 도시의 미관까지 고려한 쉼터형 버스승강장



㉣ 명품도시에는 ‘명품승강장’ 이 제격

버스 정보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소가 지저분하고 불편하다면 버스를 이용하기 싫어질 터. 우리시는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버스 승강장 ‘고유모델’을 개발해 도시의 이미지를 가꾸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앞두고 대중교통 시설을 개선한다는 전략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해온 대중교통 시설 개선에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우선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까지 4년간 버스정류소 3천115개중 승

강대가 설치되지 않은 1천 9 4 8 개 소 의 23%인 437 개소에 쉼터를 설치했다. 그렇다고 비

가림이나 겨우 할 수 있는 획일화된 정류소를 상상한다면 좀 섭섭하다. 우리시가 설치한 쉼터는 우리시의 도시경관위원회 의 디자인 심의를 거쳐 명품도시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결정했다. 버스정류소 하나에도 우리 인천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명품 버스승강장의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긴 것이다. 쉼터는 지붕 모양을 한국의 곡선 및 파도 모양으로 디자인해 인천을 상징하고 지붕과 주 기둥 사이는 내천자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해부터 내년까지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및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비한 쾌적한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장 주변과 간선도로변, 노후 승강장을 정비한다. 410개소의 쉼터를 정비하고, 437개소에 는 조명을 새로 설치한다.

이같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우리시 가로환경정비에도 크게 기여하는 한편 버스 이용 승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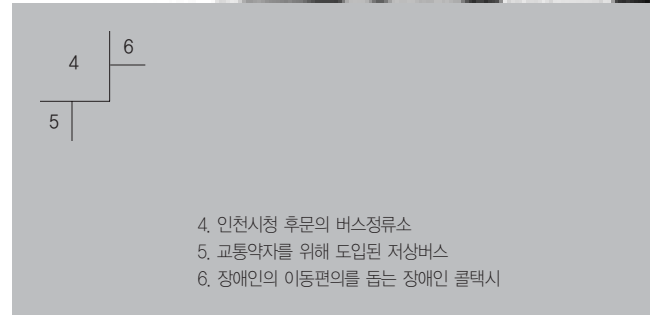


㉣ 밖으로 나서기 힘든 분들 걱정 마세요

교통이용 약자들을 위한 배려도 눈에 띈다. 우리시는 지난 2004년부터 저상버스를 점차 늘리고 있는 중이다. 2004년 3개 노선 4대로 시작한 저상버스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10개 노선에서 74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됐다. 올해는 17대를 추가해 모두 91대의 저상버스가 승객을 실어 나른다. 2013년까지 인천 시내버스의 10%인 150대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겠다는 의지가 점차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저상버스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개발된 선진국형 최첨단 시내버스로 대중교통의 혁명이라 할만 하다. 노약자와 탑승객이 쉽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실내높이를 낮추고 출입구의 계단을 없애 탑승객의 승·하차 부담을 줄인 버스다. 또한 휠체어램프가 장착돼 있어 장애인이 편리하고 빠르게 타고 내릴 수 있고 실내바닥에는 휠체어 고정 장치가 있어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1577-0320)도 올해는 20대가 더 늘어나 모두 60대로 확대된다. 장애인 콜택시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운행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우리시는 2011년까지 총 124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ㄹ



4. 인천시청 후문의 버스정류소
5.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
6.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는 장애인 콜택시

미니 인터뷰 · 안현희 인천교통공사 사장



사가 해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830억원을 들여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시와 싱가포르 타이거 항공과 함께 저가항공 사업에도 참여합니다.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은 월미도 일대와 동인천 일대를 관광전차로 돌아보며 관광하는 것으로 인천관광 여건의 개선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익창출이 기대돼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통공사는 올해 버스 적자노선의 운영을 맡게 될 ‘인천형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준공영제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동편의를 원하지만 버스업체는 손해 보는 노선에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교통공

시민들은 공기업에 대해 변화와 혁신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 주요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로 실천하는 의지를 가지고 동북아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교통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하며 시민에게 무한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공사의 당면과제입니다.

우리 공사는 2006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난해에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적정 경영에서 얻은 수익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관련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고품질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사가 함께하는 경영상을 확립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 직원들이 제출한 건의사항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선별해 실무에 적용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해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에 어울리는 깨끗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교통체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이들 눈 속에 비친 우리의 미래



글 · 이우영 인천영여마을 이사장



요즘 들어 지나가는 아이들을 볼 때면, 부쩍 그들의 눈빛을 유심히 바라보게 된다. 왜일까? 혼란스럽고 바쁘게 돌아가는 불안정한 세상 속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은 분명 있으며, 이는 바로 아이들의 눈빛 속에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미래의 희망인 아이

이들의 눈빛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과연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을까?

기계만능주의로 인해 기계가 이 세상 구석구석을 채워가고 인간이 그 편리함에 길들여져, 이제는 누가 누구를 만들고 길들이는지를 모르는 이 세상이 아이들의 눈빛을 흐리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우리 어른들은 으레 아이들에게 본인들의 어린시절을 회상시키며,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컴퓨터나 휴대폰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너희들은 편한 세상에 사는 거야” 라고 어쩌면 본인들에게 위로 아닌 위로가 되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과거에는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낭만과 지금보다 더 깨끗한 환경이 있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요즘 초등학교도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을 과거 우리세대에는 꿈도 꾸지 못했기에 요즘 아이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편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차츰 망가뜨린 오존층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외선에 노출이 되었고, 글로벌

워밍(Global Warming) 현상으로 인해 아름다운 사계절의 변화 또한 뚜렷이 지켜볼 수 없다.

또 무한경쟁시대가 된 이 세상은 경쟁 없이는 애나 어른이나 살아가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선의의 경쟁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환경 속에 이끌려 자라난 아이들은 결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은 누가 만들었나? 바로 우리 어른들이다. 아이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리저리 다른 학원으로 하루 종일 돌리며 본인의 아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만능으로 키우려는 부모들의 무모한 욕심 속에서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가끔은 아이들을 데리고 기계가 조금 덜 지배하는 교외로 나가 자연을 보여주고 펼쳐진 싱그러움 속에서 맘껏 뛰놀며 원대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다. 또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무엇이든지 잘해야 한다는 부모의 만능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아이들 개개인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며, 하고 싶은가를 진지하게 토론해보는 것 역시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이처럼 아이들이 우리세대가 누렸던 자연환경의 만 분의 일이나마 느껴 보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좇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들의 눈에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보여 질 그들의 눈 속의 희망찬 미래를 상상해보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 ♪

내가
가슴에
새긴
한
구
절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끌어버렸다. /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청기즈칸이 되었다.” - 청기즈칸

대륙을 정벌했던 청기즈칸의 원대한 꿈과 마음의 자세처럼,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시련을 극복하며, 마음속에 큰 꿈을 품고 자라나길 기대해본다.



희망 출발 썰매 출발~~

삼촌과 함께 새해 희망을 낚으러 화천으로 산천어 낚시를 갔습니다. 조카들은 새해 희망을 낚시대에 걸어 낚고, 기차를 만들어 새해의 첫출발을 하였습니다.

길옥연 | 남구 학익2동



연세대학교 꿈나무

연세대학교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친구와 대학교 탐방을 하게되었다. 2010학년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이...

이연 | 서구 석남3동



시골풍경

얼마 전 시골에 작은 행사가 있어 가족이 모였어요. 땅 속에 묻어두었던 무와 배추로 맛있는 김치를 해먹었습니다. 인천으로 상경하는 제보파리 숙엔 따뜻한 부모님의 정성도 가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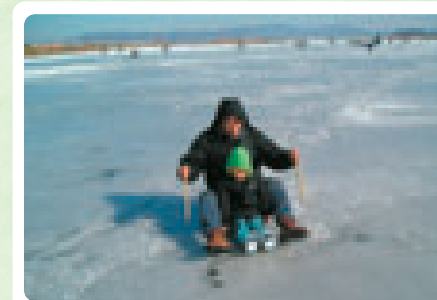
박민주 | 남동구 간석동



우리 엄마의 사랑

지금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늘 주려고만 하는 엄마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한 젓가락만 더 먹자 먹자 하셨지만 그때는 왜 싫다고만 했던지. 부끄럽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저도 사랑을 흠뻑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은솔 | 남구 주안동



겨울엔 얼음판이 최고~

돈 주고 스케이트장이니 눈썰매장이니 갈 필요 있나요? 서구 매립지에서 가까운 검단수로에 가보세요. 썰매도 타고 얼음낚시도 하고 최고의 놀이터랍니다.

권순우 | 중구 북성동



우리집 미스터코리아~

5살 귀여운 아들이 육체미를 자랑합니다. TV에서 본건 있어서 멋지게 폼은 잡아보지만 볼록 배 때문에 폼은 안나네요. 아들은 이 사진을 보며 부끄러워하는 10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볼록 배는 남아있답니다.

이지연 | 연수구 청학동

※ 지난해 김치찰작에 게재된 홍성덕님은 청천1동으로 바로잡습니다.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1

봄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비엔나

요한 슈트라우스, 모차르트를 비롯해 베토벤과 슈베르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거장들이 사랑했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Vienna). 고전 음악의 성지인 비엔나만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문화명품도시도 드물다. 꽃과 신록으로 가득한 공원, 독특한 선율만큼이나 개성이 강한 지역과 못사람들을 유혹하는 음악회, 화려한 물건으로 가득한 상점가, 그리고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선술집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을 방문해도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비엔나는 지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화명품도시다.

글 · 사진 이형준 (동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행) 저자



슈트라우스 선율처럼 아름다운, 도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로 지정된 이후 700년이 넘게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비엔나에는 흥미로운 명소가 즐비하다. 고즈넉한 골목에 자리한 앙증스러운 박물관과 미술관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부터 제국의 황제가 머물던 궁전까지 수많은 명소가 산재되어 있다. 도처에 명소가 즐비한 비엔나이지만 도시를 대표하는 곳을 꼽으라면 시민 가운데 심중팔구는 도심에 자리한 공원을 선택한다.

시민 공원, 하일리겐슈테터 공원, 헤르만 크마이너 공원, 레셀 공원, 막싱 공원, 그리고 다뷰브 공원... 비엔나에 조성된 공원들은 런던의 하이드파크나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광활하지는 않지만 하나같이 정겨우면서도 독특한 정취를 자아낸다. 비엔나 공원을 걷다보면 여느 도시에 조성된 공원과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별나게 예술가의 조형물이 많다는 것이다.

공원에는 바이올린을 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를 필두로 화가인 에밀 야콥 신들러,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와 프란츠 레하르, 시각 예술가 한스 마카르트 등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또 인근에는 대문호 괴테와 쉴러를 비롯해 베토벤, 브람스, 모차르트 등 누구나 알만한 음악가와 화가를 형상화시킨 조형물이 십여 개가 넘는다. 공원과 거리에 세워진 동상의 주인공들은 비엔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비엔나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한 예술가들이다. 세계적인 고전음악가들 가운데 비엔나를 거치지 않은 음악가가 없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를 증명하듯 국립 음악 박물관에는 비엔나에 거주하며 창작활동에 매진했던 음악

1. 비엔나의 상징인 슈테판 대성당 앞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
2. 비엔나 시민공원을 찾은 청소년들이 요한 슈트라우스 동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3. 음악가 복장을 착용하고 비엔나 거리에서 음악회 티켓을 판매하는 모습
4. 비엔나 유일의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엔나 신부른 궁전의 정원



가의 악보와 그들이 사용했던 용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문화명품도시 비엔나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는 슈테판 대성당 주변만한 곳도 없다.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는 슈테판 대성당 지역을 걷다보면, 거리 음악가와 티켓을 파는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 귀전을 유혹하는 감미로운 선율을 따라 꼬불꼬불한 골목을 빠져나오면 어김없이 광장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들을 만날 수 있다. 거리 음악가들의 음악은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 거장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한편 슈테판 광장과 골목에서는 독특한 복장과 머리모양을 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시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공연티켓을 팔고 음악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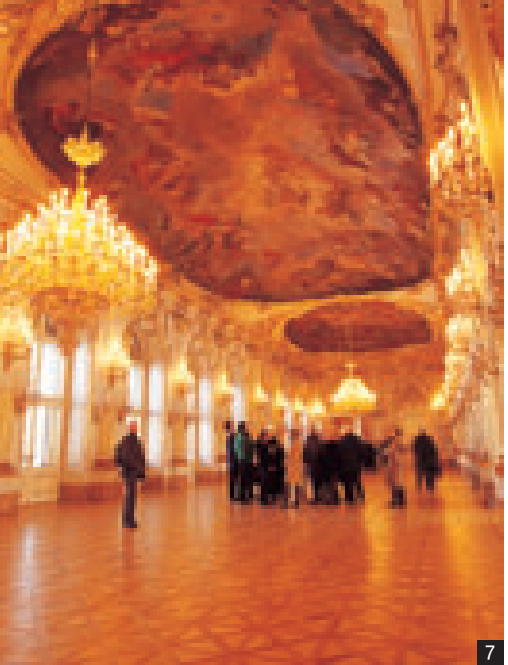
시간을 거스른 매혹의 풍경

문화명품도시 비엔나가 탄생하기까지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그 중 돋보이는 곳이 도심 서쪽에 터를 잡은 쇤부른 궁전이다. 자랑거리가 많아 모두 언급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궁전 건물과 음악을 빼놓을 수 없다. 여러 차례 설계를 변경하고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완성한 쇤부른 궁전은 베르사유 궁전과 더불어 서양 궁전 건축의 결정판으로 손꼽힌다. 쇤부른 궁전은 바로크와 로코코, 신고전주의를 중심으로 십여 개에 이르는 건축양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궁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은 로코코 양식으로 꾸며진 그레이트 갤러리다. 과거 황실의 연회장으로 사용했던 그레이트 갤러리는 현재 외국 국가 원수들을 위한 만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화려함에 눈이 부시다.

쇤부른 궁전에는 이 외에도 흥미로운 공간이 많은데 그 중 놓칠 수 없는 곳이 정원과 극장이다. 쇤부른 궁전의 정원은 유네스코가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건축물



6



7

5. 쇤부른 궁전에서 가장 높은 곳에 그리스 양식으로 건축해 놓은 승리의 개선문 글로리에테
6. 마차를 타고 고즈넉한 비엔나 도심을 관람하고 있는 방문객
7. 모차르트가 6세 때 황후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서 연주를 했던 그레이트 갤러리

과 함께 정원을 명시해 놓을 만큼 보존가치가 뛰어나다. 미로를 연상시키는 드넓은 산책로와 정원은, 비엔나 역시 명품도시의 공통점인 숲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풍광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글로리에테 개선문이 제격이다. 1757년 코린 전투에서 오스트리아 군대가 프로이센 군대를 격파한 기념으로 만든 글로리에테는, 지구촌에 현존하는 개선문 중 가장 세련된 구조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연못에 반영된 모습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글로리에테 개선문은 건물 자체도 멋지나, 이곳에서 바라보는 비엔나의 풍경과 지상 최고의 산책로로 알려진 비엔나 숲은 보는 이의 마음을 막을 정도로 아름답다.

궁전에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간직하고 있는 부속건물이 준비하다. 그 중 하나가 동쪽에 위치한 공연장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관람하는 음악회를 중심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음악회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연주회가 펼쳐진다.

시민을 위한 문화명품도시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문화명품도시 비엔나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이나 공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엔나 도심을 걷다보면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을 필두로 매혹적인 공간이 준비하다. 그 중 하나가 시영아파트인 훈데르바트바서 하우스다. 1985년 건축가 프리텐스라이히 훈데르바트바서에 의해 세워진 이 건물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주거공간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나다. 훈데르바트바서 하우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위해 지어졌지만 그 어떤 부호의 집보다 아름답고 예술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배려는 서민들로 하여금 비엔나에 거주하는 것 자체에 커다란 긍지를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해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여기에 당국은 거주자들이 카페와 상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해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도록 했다.

비엔나는 단순히 낭만적인 문화예술도시가 아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 실용주의를 중시하고, 한편으로는 옛 것을 활용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맞춰 도시를 가꾸는 진정한 명품 도시다. 🍷

막上막下 이달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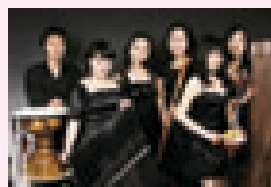
여섯 남자와의 발랄한 데이트 퍼니밴드



퍼니밴드(Funny Band)는 젊고 신선한 감각으로 클래식 of 새로운 추구하고 관객과의 친밀한 무대를 이끌어 온 브라스 팀이다. 클래식이 갖고 있는 지루하고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관객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브라스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그들의 음악은 일반 대중과 친밀하게 호흡하면서 즐길 수 있는 클래식은 물론 재즈나 가요 등 여러가지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연주한다.

일시 _ 3월 15일(토) 오후 3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티켓 _ 전석 6,000원
문의 _ ☎ 777-9140~8 / www.iec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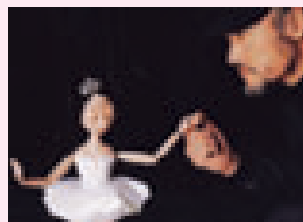
아리랑 낭낭



‘아리랑 낭낭’은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 음악을 레퍼토리로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이다. 낭낭이란 팀명은 민족의 혼인 담긴 아리랑과 젊은 남녀를 의미하는 여자 낭(娘)자와 남자 낭(朗)자를 덧붙인 것이다.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토대로 민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량 국악기와 새로운 창법으로 창작국악을 선보인다.

일시 _ 3월 15일(토) 오후 2시
장소 _ 한중문화관
티켓 _ 무료
문의 _ ☎ 760-7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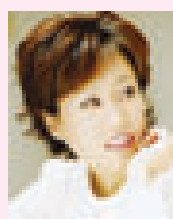
유럽 정통 마리오네트 콘서트



깜찍한 목각인형 마리오네트들이 등장해 노래하고 춤추며 온갖 재롱을 떨며 동심의 세계로 안내한다. 러시아국립연극대학에서 인형극학과를 수료한 연출가 김종구 씨가 직접 짚은 목각인형 마리오네트는 눈썹하나, 수염 하나까지도 사람처럼 움직인다. 실제 사람보다 더 실제적인 연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공연 내내 흐르는 러시아와 유럽 음악은 생소하지만 아름답다.

일시 _ 3월 8일(토), 9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일반석 15,000원(어른/어린이 동일)
문의 _ DUBU기획 ☎ 02-2654-6854

사랑의 소리, 추억의 소리 남궁옥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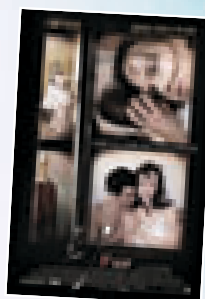
꿈을 먹는 젊은이,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진정 난 몰랐네 등 많은 히트곡을 남긴 70, 80세대의 대표적인 추억의 가수 남궁옥분을 부평에서 만나본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선 통기타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소리에 가슴 깊이 접어 뒀던 추억들이 하나둘씩 생각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 _ 3월 27일(목) 오후 7시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티켓 _ 전석 1,500원
문의 _ ☎ 505-5995

영화공간주안

퍼(Fur)

20세기 미국의 천재사진작가 ‘디앤 아버스’의 생애를 영화한 작품. 남편과 아이들 틈에서 자아를 발견할 기회를 찾지 못하던 1950년대 여성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사진을 보듯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영상이 압권. 니콜 키드먼 주연.



브릭(Brick)

스타일리쉬한 미스터리 추적극으로 고전범죄 클래식의 모든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특히 10대의 눈높이로 재구성했다. 21회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



3월 상영작

※영화공간주안은 인천시 남구가 운영하는 예술영화관으로, 일반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개관시간은 오후 1시부터 10시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427-6777)



Julian Rachlin 바이올린 · 비올라 독주회

일시 _ 3월 12일(수) 오후 8시
장소 _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_ 인천&아트 사무국 ☎ 420-2027~8
www.incheonarts.com

줄리안 라클린(Julian Rachlin)은 같은 세대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가장 카리스마있고 흥미진진한 연주가로 알려져 있다. 빈필, 런던심포니, 뉴욕필,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해 온 그의 공연은 힘이 넘치면서도 신선한 해석으로 세계 음악계의 호평을 받아왔다. 유로비전 컴퍼티션에서 ‘올해의 젊은 음악인상’ 수상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한편 2000년부터는 비올라 연주자로서도 명성을 쌓고 있다.

줄리안 라클린은 이번 내한 공연에서 바이올린과 비올라 명곡들을 동시에 선보인다. 보통 첼로로 연주하지만 비올라의 명곡이기도 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열정의 대화를 나누는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 화려함의 극치를 선보이는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등 명곡들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 약 83억원 짜리 바이올린 1741년산 Guarnerius del Gesù인 ‘ex Carrodus’로 연주하는데 이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은행에서 대여해 준 것이다.

1974년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난 줄리안은 그를 입양한 음악가 부모와 함께 1978년 오스트리아로 이주하면서 음악적 재능을 보여 왔다.

이번 무대는 역시 그만큼이나 명성을 쌓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타마르 골란과 함께 한다. 이타마르 골란은 줄리안 라클린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파트너로 확실한 터치, 화려하고 열정적인 연주 등 피아니스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피아니스트 이타마르 골란

인천시립무용단 i - dance 2008

우리 춤의 어제와 오늘



시립무용단의 춤마당·흥마당이 2008년을 맞아 i-dance 2008' 로 재탄생한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보이는 i-dance 기획은 다양하고 참신한 작품을 통해 무용예술의 참 맛을 알릴 것이다. 2008년 첫 i-dance는 공연예술 전문 비평자인 <공연과 리뷰>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수상작들을 모아보았다. 2007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이번 작품들은 최근 무용계의 경향과 나아가는 방향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일시 _ 3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_ R석 1만원, S석 5천원(단체 30%할인)
- 문의 _ 시립무용단 ☎ 420-2788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82회 정기연주회

이태리 출신 지휘자 **오파비오 마리노** 초청

시립교향악단은 이태리 출신의 떠오르는 젊은 지휘자 오파비오 마리노와 2006년 제1회 가스파르 카사도 국제 첼로 콩쿠르 1위에 빛나는 첼리스트 강승민이 함께 하는 새봄맞이 음악회를 마련한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와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4번 바단조 작품36,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104를 선사한다.

- 일시 _ 3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 _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문의 _ 시립교향악단 ☎ 420-2781



시립합창단은 3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올해 첫 연주의 문을 연다. '새로움,魂'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전임 작곡가 우효원 씨를 비롯한 최정상의 작곡가들의 창의성과 시립합창단의 예술적 기량이 조화된 무대가 될 것이다.

- 티켓 _ 1만원, 7천원, 5천원
- 문의 _ ☎ 420-2784

시립무용단이 63회 정기공연을 '봄·풍경과 우화'라는 주제로 3월 28일(오후 7시 30분)과 29일(오전 11시,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갖는다. 봄의 풍경 4제를 춤으로 그린 작품으로 각 장면 속에 인간의 내음과 꿈, 자연과 계절에 대한 감각이 곳곳에 녹아 있다.

- 티켓 _ 1만원, 5천원
- 문의 _ ☎ 420-2788

월	화	수	목	금	토	일
3월	4	5	6	7	8	9
		커피콘서트 III 이자람의 판소리 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아츠 ☎ 032-420-2027~8		인천오페라단 제12회 정기연주회 <나비부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2만원, 10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인천음악문화원 ☎ 429-0248 두드림의 소리 '잔치마당'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1만5천원 ☎ 505-5995	인천오페라단 제12회 정기연주회 <나비부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30분 / 12만원, 10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인천음악문화원 ☎ 429-0248 유럽전통마리오네트 목각인형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1만5천원 두부기획 ☎ 02-2654-6854	인천오페라단 제12회 정기연주회 <나비부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2만원, 10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인천음악문화원 ☎ 429-0248 유럽전통마리오네트 목각인형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1만5천원 두부기획 ☎ 02-2654-6854
10		12 줄리안 라클린 바이올린 비올라 독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 3만원, 2만원 인천&아츠 ☎ 032-420-2027~8	13 임미희오페라단 영화속의 오페라 정기연주회 새봄맞이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7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 ☎ 032-812-5279 인천시립무용단 제1회 I DANCE 2008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 032-420-2788	14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82회 정기연주회 새봄맞이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1만원, 7천원, 5천원 ☎ 1588-2341	15 필그림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 010-6310-9843 피니밴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를 오후 3시 / 6천원 ☎ 777-9140 아리랑 낭낭 한중문화관 / 오후2시 ☎ 760-7860	16 2008 청소년세계문화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국제청소년연합회 ☎ 326-9229 화인청소년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초대 ☎ 819-2619
17	18 제2회 에버그린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3천원 한국기독인합창단 ☎ 010-6741-5202 가족뮤지컬 '말팔랑이 삐삐' (-19)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를 오전 10시 30분, 11시 30분, 오후 4시 / 1만2천원 ☎ 572-4281	19 인천신포니에타와 함께하는 음악영재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 819-6505 인천연극제 출품작 '모두 동의다'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7시 30분 ☎ 551-6602	20 인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새로움,魂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7천원 ☎ 420-2784 인천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2천원, 8천원 ☎ 438-6040 인천연극제 출품작 '모두 동의다'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7시 30분 ☎ 551-6602	21 인천연극제 출품작 '모두 동의다'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7시 30분 ☎ 551-6602 퓨전코리아 가아금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1만5천원 ☎ 505-5995	22 EBS가족뮤지컬 뽀로로와 요슬렘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2시, 4시 3만원, 2만5천원 청라이프 ☎ 1566-6551 조이브라스 퍼포먼스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760-7860	23 EBS가족뮤지컬 뽀로로와 요슬렘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2시, 4시 3만원, 2만5천원 청라이프 ☎ 1566-6551
24	25	26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 20분 8천원 (단체4천원) 극단심인 ☎ 02-744-7416	27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 20분 8천원 (단체4천원) 극단심인 ☎ 02-744-7416 사랑의 소리 '남궁옥분'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1만5천원 ☎ 505-5995	28 인천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불·풍경과 우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 420-2788 말팔랑이 삐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4시 / 1만2천원 사랑극단 꼬마세상 ☎ 016-774-0014	29 인천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불·풍경과 우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 420-2788 말팔랑이 삐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 3시 / 1만2천원 사랑극단 꼬마세상 ☎ 016-774-0014 어린이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 12시, 오후 2시, 4시 / 1만2천원 ☎ 1688-6711	30 부부가 함께 듣는 삐띠베베 스튜디오의 태고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 2만9천원, 2만원 ☎ 02-2038-3285 말팔랑이 삐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 3시 / 1만2천원 사랑극단 꼬마세상 ☎ 016-774-0014 어린이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 12시, 오후 2시, 4시 / 1만2천원 ☎ 1688-6711
31						

| 이달의 展 |

3월 7일~13일 : 제5회 인천난명품전, 그대로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3월 7일~13일 : 최바람 개인전 '날개의 무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3월 14일~20일 : 이경화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3월 14일~20일 : 인천 일광수석회 제5회 회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3월 14일~20일 : 한국수석회 인천 회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3월 21일~27일 : 이옥란 교회전 겸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3월 21일~27일 : 제9회 미추홀 한글서예협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3월 21일~27일 : 송경숙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3월 21일~27일 : 원로·중견 8인초대전 / 갤러리 진
3월 28일~31일 : 회화, 근원과 파장의 변주곡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3월 28일~31일 : 연천회정기획원전 및 해정고희서예전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3월 28일~31일 : 안미자 제1회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3월 28일~4월 3일 : 소장품전 / 갤러리 진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가족’이란 이름에 담긴 사랑과 희망

올 6월부터, 부부가 합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이혼숙려기간제도’가 시행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가족문제 전문상담기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상처 입은 가정을 어루만지고 희망 찬 미래로 인도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의 문을 두드렸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윤신자 소장(중앙)과 전문위원 및 직원들

한 번 더 생각하면, 가족이 행복해요

작년 여름, 아직 얼굴에 숨털이 보송보송한 10대 베트남 소녀와 30대 한국 남성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를 찾았다. 결혼한 지 겨우 10 여일이 지난 이들 부부는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다. 상담위원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갖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부부를 설득했으나, 두 사람은 결국 문화와 나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연의

끈을 놓고 말았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47.4%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스웨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안타깝게도 우리시의 이혼율도 2006년 기준 연 8천여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높다.

‘이혼숙려기간제도’는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에게 서로 생각할 3주간의 시간을 주는 제도로, 성급하게 이혼에 이르는 길을 막고 올바른 결혼관을 정립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3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됐으며 올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든든한 가정지킴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2년 문을 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는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화해조정과 무료대서, 법률구조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이혼숙려기간 위탁상담을 해오고 있다. 합의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인천 지방법원에서 이혼 보류판정을 받으면 이곳에서의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은 변호사, 교직자를 비롯해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상담경력이 있는 전문위원 60여명에 의해 진행된다. 나와 내 가족을 돌아보게 하는 진솔한 상담과 분노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부부대화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어긋난 혼인관계를 바로 잡는 길을 제시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의 윤신자 소장은 실제로 가정상담이 시작된 후 인천의 이혼율이 급격히 줄었다고 말한다. “처음 이혼숙려제도에 따른 상담을 시작했을 때는 ‘왜 가정상담이 필요한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정을 지키는 쪽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실제로 상담을 시작한 후 인천의 이혼율이 25.9%나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이혼 보류 가정을 위한 사후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으로 인천의 이혼율을 낮출 것입니다.”

가족은 사회의 힘

하루에도 스무 쌍에 가까운 부부가 절실한 마음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문을 두드린다. 이혼숙려기간제도로 찾는 이가 두 배 더 늘었으며, 전화, 편지, 변호사 상담까지 더하면 연 6천여건의 상담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에 비해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사무실 운영이 전액 자부담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상담소 내 직원들에게 보조되는 지원금도 월 50만원에 불과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의 총무를 맡고 있는 이도희 변호사는 가정문제는 개인을 떠나 사회의 몫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가정이 어긋나면 사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려면 부부가 오해의 벽을 허물고 서로 믿고 배려하는 것은 물론, 시와 각종 기관 및 단체,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듯이,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직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정과 사회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기 위해 아름다운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



결혼과 이혼 사이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합의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지방법원에서 이혼 보류 판정을 받으면 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한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상담 기회가 주어진다. 이 때 상담은 부부상담을 비롯해 올바른 자아형성 및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의 경우, 상담 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기자가 많은 경우 상담이 바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로 상담일정을 확인한 후 방문한다. 모든 상담은 무료다.

문의 ☎ 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438-1113, 4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9-422267
가정법률상담소



영화학당 학생들.
군사훈련을 끝내고 포즈를 잡았다.

‘향교’도 최초, 초등 신교육도 최초

새 학기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입학식을 한 어린이, 꿈 많은 중학생, 대입 전선에 나선 고3,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을 대학생, 모두 등교길 발걸음이 싱그럽기만 하다. 바야흐로 인천의 수백여 학교들은 기지개를 펴고, 학생들은 힘차고 보람있는 내일을 꿈꾸고 있다. 3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쾌적한 교육 환경과 최첨단의 시설 등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대변혁을 느끼게 한다. 그걸수록 그 옛날 인천의 학교는 어떠했을까 궁금해지는 것도 인지상정이라.

글 · 조우성 시인 ·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

학교의 원조는 향교와 서당

멀리 고려 시대 인천의 학교에는 관학인 향교와 사학인 서당이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서원(書院)이 생겨 향교와 함께 중등 교육을 담당했다. 이들은 성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 등을 담당해 지역 문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마을마다 들어선 서당은 반상(班常)을 가리지 않고 초등 교육을 담당하였다. 향교는 지금도 교동·인천·부평·강화 등 4곳에 남아 있다. 그 중 고려 때(1127년) 세워진 교동향교는 우리나라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고, 강화·부평향교도 거의 같은 무렵에 건립되었으며, 인천향교 역시 토지와 전적, 노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30명의 교생을 가르쳤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인천 교육의 뿌리가 면면함을 알 수 있다.

학산서원, 아쉽게 훼철돼

백운동서원 이후 전국에 세워진 서원은 청년자제들이 학덕을 연마하는 사립 교육 기관으로 국가에서도 장려했다. 인천에는 문학의 학산서원(鶴山書院)과 강화의 충렬사(忠烈祠)가 있었다. 그러나 고종 8년(1871) 서원 철폐 정책에 따라 전국 679개소 가운데 47개만 남기고 폐지했는데, 이때 학산서원도 훼철됐다. 천자문, 동몽선습 등을 배웠던 서당은 조선 시대에 더욱 번성하였다. 개화기를 거쳐 일제 강점기까지 존속해 민족 교육의 산실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17년 경기도 내에는 2,463개소의 서당이 있었으나 ‘서당규칙’ 공포 이후 점점 줄어 1932년 인천에는 7개소만 남아있던 것으로 전한다.

영화학당, 신교육을 시작하다

1883년의 인천 개항은 교육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1885년 4월 5일 인천에 도착한 아펜젤러 목사 부부는 내리교회 창립의 기반을 닦았고, 제2대 목사인 존스와 그의 부인은 1892년 교회 안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모아 신교육을 시작했다. 이들은 1894년 건물을 6칸으로 늘리는 한편 학교 이름을 ‘영화학당(永化學堂)’이라 짓고, 남학생 50명, 여학생 20명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인천은 물론 우리나라 최초로 문을 연 서구식 초등 교육기관이었다. 영화학당 학생들은 단발머리에 흑색 교복을 입는 등 개화에 앞장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 후에는 미국에서 기증받은 나팔, 북, 소종 등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해 이름을 날렸다. 학동들의 제식 훈련 모습은 당시 인천의 큰 자랑거리였다.

최초의 관립학교는 외국어학교

그 무렵, 김홍집 내각이 갑오경장을 단행하고, 이듬해 고종 황제는 교육에 관한 조서(詔書)를 내렸다. 황제는 신교육을 강조하였고, 교육이 국가 중흥의 강력한 힘이 될 것을 역설하였다. 그같은 교육입국의 정신에 따라 근대식 학교의 법규와 규칙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그에 따라 인천에서도 학교가 속속 설립되었다. 인천 최초의 관립 학교는 외국어(外國語) 학교였다. 개항 이후 외국과의 교류에 필수적인 외국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부아문(지금의 교육부)이 1895년 6월 인천감리서 안에 직접 세웠다. 정식 명칭은 ‘관립외국어학교 인천지교’였다. 초창기의 수업 연한은 3년이었고, 영어과와 일어과가 있었



서당에서 학동들이 훈장에게 글을 배우고 있다.



인천 관학의 효시인 관립인천외국어학교 졸업기념 사진

다.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영어과를 폐지했고, 1904년 4월에는 학교명을 관립인천일어학교라 했다. 이 학교는 뒤에 인천상업학교로 전국에 명성을 떨쳤고, 광복 후에는 인천고등학교(仁川高等學校)로 개칭했다. 1995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거시적인 기념 축제를 가져 많은 이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개교 예정인 국제학교와 커리큘럼이 유사한 학교를 이미 한 세기 전에 설립했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사학, 제녕학교가 처음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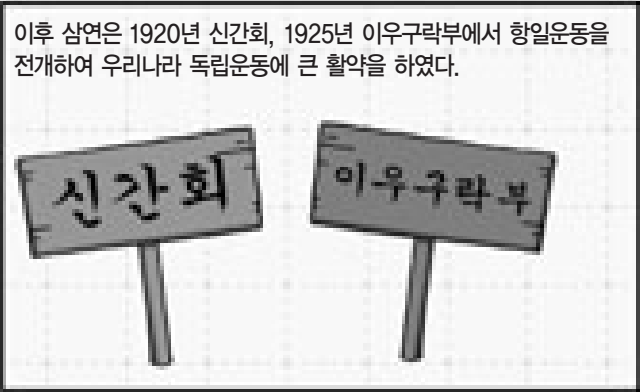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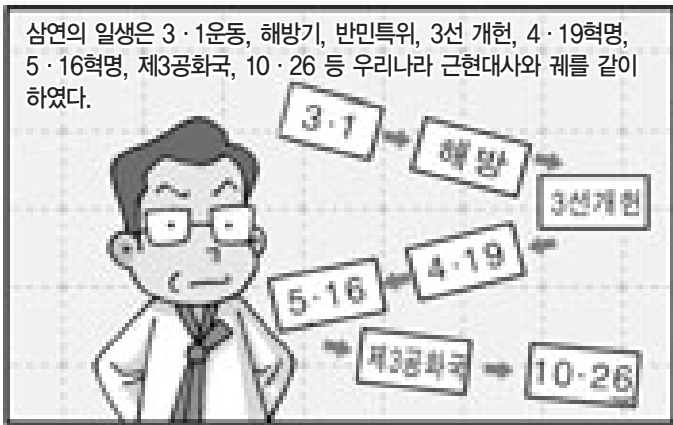
순수 민간 사립학교로 처음 문을 연 곳은 ‘제녕학교(濟寧學校)’였다. 인천신상협회의 서상빈(徐相彬) 사장이 세워 인천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꾼을 기르고자 신학문과 영어를 가르쳤다. 설립 당시 자금이 부족해 제물포해전 때 자폭한 바락 호를 인양해 거금을 쥔 김정곤(金貞坤)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한다.

주간에는 일반 신학문, 야간에는 영어를 가르쳤는데, 서병희(徐丙熙), 서병협(徐丙協), 장면(張勉) 국무총리의 아버지 장기빈(張箕彬) 씨와 인천해관 직원 강준(姜準) 씨 등이 교사였다. 그러나 제녕학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그 명맥도 계승하지 못해 인천 학교사의 아쉬운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들 세 학교를 소개한 것은 인천의 신교육 초창기에 그들이 감당했던 선구적 의미를 되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그 전통의 맥을 이어 후에 설립한 수많은 초·중·고·대학교들이 인천의 자제들을 기르고, 키워 이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한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역사의 풍랑 속에 핀 희망
삼연 광상훈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건강이란 사람이 주위 환경에 지속적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정도다. 사람들은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웰빙을 부르짖고 조깅, 테니스, 골프, 등산 등 각자 시간과 체질에 맞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땀을 흘려도 실내에서 헬스를 해서 땀을 뺀 것과 밖에서 운동을 해서 땀 뺀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난 건강 지킴이로 등산을 즐겨하고 권하기도 한다. '등산' 하면 봄에 꽃구경, 가을에 단풍구경 한두 번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계절을 산에서 즐기는 등산인구가 많아졌다. 나도 산에 다니기 시작한 지가 20여 년됐다. 설악산, 지리산, 태백산, 소백산, 월출산, 덕유산과 인천, 서울근교의 산을 좀 다녔다. 또한 인연이라 할까 정년 후 제2의 직장을 얻은 곳도 문학산 자락의 옥련동에 위치하고 있어 주말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립사격장 옆으로 전망대까지 다니고 있으며, 때론 청량산에도 올라가 인천 앞바다며 송도 신도시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등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많겠으나 혼자 보다는 둘 이상이 답소도 나누고 맑은 공기 마시며 걷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일주일이 산뜻하게 느껴질 것이다. 인천엔 문학산, 청량산 외에 계양산이 있어 주말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 생각된다. 이번 주말 친구와 산행을 계획함이 어떨런지... 건강은 건강할때 내 스스로 관리하자.



이윤영_연수구 옥련동

등산과 결혼이야기

충각시절 전(前) 직장에서 산악회에 가입해 한 달에 2~3차례 전국의 산을 돌아 다녔다. 눈 내리던 추운겨울 설악산, 수락산, 도봉산, 소백산, 대둔산, 태백산, 불곡산, 관악산, 북한산 등등 그 당시 올랐던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산들이 10년 그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다. 그때 난 산악회의 홍보·편집부장 직책을 맡아 '산악회보'를 만들게 됐다. 1994년 4월의 일이었다. A4크기 70페이지 분량의 '산악회보'를 나 혼자 완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묘안을 짜냈다. 난 초안을 잡고 컴퓨터 워드작업을 해줄 사람을 소개 받기로 한 것이다. '○○영어 출판사'라는 회사에 다니는 20대 중반의 아가씨를 소개받았다. 초기 구상대로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 초안을 잡으면 그녀가 컴퓨터로 워드작업을 해주었다. 우리는 업무가 끝나고 저녁시간에 만나 편집회의를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

겼다. 컴퓨터 워드작업의 전문가인 그녀가 내 의도대로 작업을 해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오타 등 결함 사항이 종종 생긴 것이다. 난 화를 냈고 그녀는 엄청 당황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너무나 당당했고 정말 못된 사람이었다. 그런 내 행동에 그녀는 무척 화가 났을 것이다. 3번째 만나던 날인가? 그녀와 인사동 한옥에서 저녁을 함께 먹던 날... 난 그녀에게 신세한탄을 당당히 했다. "난 혼자다. 신촌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나와 사귀던 아가씨가 나를 버렸다. 지금 서른 살인데 너무 외롭다. 세상이 날 버린 것 같다." 등등... 아무튼 그렇게 산악회보는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그해 9월 드디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둘이 심혈을 기울인 산악회보가 완성되었다.

세월이 흘러... 지금 난 예쁜 딸(초등6), 귀여운 아들(초등5)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때 그녀는 어떻게 됐냐고? 지금 나와 한 이불을 덮고 생활하고 있다. 결혼 14년차. 대한민국 하늘아래서 남부럽지 않게 산을 오르듯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내 인생의 향로를 바꾸어 놓은 등산과 산악회보. 위대한 작품 '산악회보'는 지금 우리 집에 잘 모셔져 있다. 총각, 처녀 여러분 등산을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이우희_계양구 굴현동



산행 시합

어제는 꿈쩍 않고 하루를 보냈다. 그러자 저녁 조금 먹은 게 소화도 되질 않고, 하는 수 없이 운동화를 찾아 신고 강아지 토트를 앞세워 학교 운동장까지 나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잠은 오질 않고, 괜히 뒤척이다 엉뚱하게 손에 잡힌 게 78년도에 나온 색바랜 조선왕조야사. 새벽까지 성삼문은 세조 옆에 선 아바위 신숙주를 질타하고, 그러다 가까스로 든 잠은 채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 더부룩한 속에 깨고 말았다. 안되겠다 싶어 등산화를 찾아 신고 늦은 아침 산행을 나섰다. 정오는 멀었는데도 햇살은 따갑다. 동여맨 머리띠가 금세 젖도록 청량산 정상에 향해 힘차게 올랐다. 예전엔 중간에 10번도 넘게 쉬어야 올라가던 산인데, 이제는 정상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오히려 약간 땀이 오른다. 가는 중에 무명의 적수를 만나면 그 속도가 더해지게 되는데, 오늘이 그런 경우였다. 탄탄한 체격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오늘의 적수는 거의 발이 보이지 않는다. 구불렁한 바위 코스를 손도 대질 않고 단숨에 오른다. 나는 목까지 차오르는 숨을 가까스로 누르며 눈으로, 발로, 손으로, 그를 쫓는다. 잠시만 아차 하면 그는 저만치 앞서 간다. 나 역시 가



급적 바위에 손을 대질 않고 다리 힘만으로 그의 뒤를 따른다. 어디선가 애처로운 바이올린 소리가 귓전에 울리는 것 같다. 이명이 들릴 만큼 숨이 차다. 그는 분명 어디 전방의 수색대 출신이거나 아니면 무술의 달인일 것이다. 나는 나이 사십에 비계 덩어리를 조금 들어낸 심약과 허약의 전형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다. 정상이 보인다.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산을 오른다. 갑자기 오기가 난다. '정상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너를 잡으마!' 태백산이나 지리산이면 몰까, 동네 뒷산쯤이야 내가 너를 따르지 못할까 보냐. 숨을 고르며 바짝 그의 뒤로 붙는다. 같은 방향을 오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처진다. 다 왔다. 정상이 코앞이다. 그의 등도 바로 코앞이다. 정상을 몇 발자국 남기고, 나도 모르게 그만 그의 등을 손바닥으로 '착!' 하고 때렸다. 놀란 그가 나를 돌아본다. 실은 나도 놀랐다. 그렇다고 그에게 '잠이야'라고 얘기할 순 없었다.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해주었다. "저기, 별레가 붙어 있었어요..." 그가 "무슨 별레드냐"고 물어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다시 숨을 고른다. "무슨, 풍뎡이 같기도 하고, 아 참 무당벌레였어요..."

김우섭_연수구 옥련동

희망찬 구명줄

"아야호, 아야호." 손나팔을 하고 힘껏 외쳐본다. 함허동천 정상에서 내려다 본 탁 트인 강화 앞바다는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다. 그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옛 일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진다. 주일마다 등산하게 된 것은 5년 전 부터이다. 강화도 마니산을 비롯해 고려산, 혈구산, 봉천대 등... 솔 향 그윽한 소나무 군락으로 휴가 때나 연휴 때는 전국 유명산을 찾아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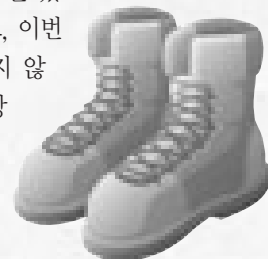
2003년, 암 치료법으로 시작한 것이 이젠 생활습관이 되어간다. 등산이 암 치료에 좋은 것은 신선한 산소가 체내 깊숙이 스며들어 체온을 올리고, 혈액에 묻혀있는 율혈을 풀어줌으로써 몸 속 변형세포를 감소시킨다는 의미에서이다. 항암치료 후 처음으로 등산했을 당시, 체력이 쇠진해 온 몸이 땀 비로 흠뻑 젖고, 숨이 차 험뎡거리며 탈진한 몸으로 올라가다 쉬고 쉬었다 또 오르고, 몇 번을 반복하며 거북이처럼 엎금엎금 정상을 기어올랐다. 앞장 선 남편과 뒤따르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줄줄 흐르는 땀줄기를 닦아내면서, 행여 가족들이 가슴 아파할까봐 숨죽여 눈물을 훔쳐내야만 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펼 펼 날아다닌다'는 애길 듣는다. 가슴 뚫듯하고 감사할 일이다. 그래, 잘 이겨냈어! 모두 등산 덕분이리라!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시도하는 등산이 우리네 인생

같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올라가면 멋진 진경을 만나듯 인생도 꾸준히 정진하면 결국 성공에 이르지 않는가? '산은 생명이다'란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등산을 몰랐다면 지금처럼 견재할 수 있을까? 산이 있어 고맙고, 등산이 희망찬 내 구명줄이다.

최인옥_부평구 십정동

두컬레의 등산화

"어, 세일하네?" 운동을 하던 중, 한 신발가게 앞에 멈춰 선 남편의 한마디! 해마다 그러하듯,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산화 두컬레를 구입한다. 솔직히 나는 한 컬레만 사라고 말리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신발에 애착이 많고, 신발 아닌 다른 쇼핑에서는 잔돌이 기질이 있는지라, 꼭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양 손에 들려진 등산화 쇼핑백. 하나는 차에 실어 놓고, 한 컬레만 집으로 가지고 왔다. 시간 될 때마다 등산하려는 게 이유란다. 신발 구입 때마다 늘 있던 일인지라 아무렇지 않으면서도, 이번에는 잊어버리거나 금세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두 컬레씩 구입해도 얼마 후에는 다양한 이유로 한 컬레가 되는 이유 때문이었으리라. 이번 설 명절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큰 아주머님 차에 실린 남편의 등산화! 등산을 좋아하고, 발 사이즈가 같은 큰 아주머님에 대한 남편의 형제애였던 것이다. 그 순간, 가슴이 쩡쩡 움을 느끼며 나 스스로 다짐 해 본다. '그래, 나도 등산을 해 보는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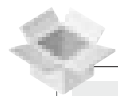
유영자_계양구 병방동

다음달 테마는 '꽃'입니다.

'꽃'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3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2072)



info box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 이용하세요

(재)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인천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세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을 운영합니다.

■ 상설 전시판매장

- 전시품 : 기계부품, 조립금속, 정밀기기화학, 자동차부품, 정보통신부품, 지역 특화상품, 가구, 기타 등
- 판매품 : 생활용품, 건강용품, 스포츠용품, 아이디어상품, 전기용품, 기타
- 대상업체 : 인천소재 중소기업-위탁판매(타 지역 가능함)
- 운영방법 : 전시장 직원이 위탁 관리
- 이용료 : 제품전시 3~10만원(연간)-위탁판매(수수료 판매액의 1%)

■ 입점업체 지원

- 경영지원 : 컨설팅, CreBiz스쿨, 통번역지원, 공장설립지원 등
- 자금지원 :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 기술지원 : 일본,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기술교류상담 및 기술협력연수 지원
- 디자인지원 : 국제디자인페어, 국제디자인기술교류, 디자인개발사업지원
- 각종 박람회 등 행사정보 제공
- 전시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전시장 운영

■ 기획전시장

- 전시장 규모 : 실내 405평(60개 부스 설치 가능), 천막설치시 최대 120개 부스 설치가능, 실외 주차공간(최대 240대 주차 가능), 옥외행사(500평 이벤트 행사장으로 활용가능)

■ 문의 : 인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 ☎ 821-1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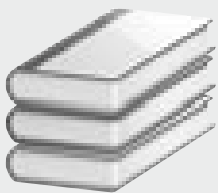
중국 자매·우호도시 한인회에 ‘책 보내기 운동’

우리시에서는 중국 현지 한국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자매·우호도시 한인회에 한글판 도서를 기증하기 위해 ‘책 보내주기 운동’을 시행합니다.

■ 추진기간 : 연중(2008년 2월부터 분기별로 구분하여 추진)

- ※ 1단계는 3월말까지 접수 및 발송 완료(발송비용 등은 시에서 부담)

- 기증대상 : 중국의 우리시 자매·우호도시 등(자매도시-천진시, 중경시, 우호도시-단둥시, 연대시, 대련시, 청도시, 산둥성, 기타도시-광주, 하얼빈) 한인회



- 도서종류 : 한글판 소설, 동화, 전문서적, 교육서적, 잡지 등
- 도서상태 : 신간 및 상태 양호한 중고서적(가능하면 2000년 이후 발간도서)
- 수집방안 : 시, 군·구, 각급 기관·단체 및 관내 주민 등의 자율적 기증
- 활용방안 : 한인회 문화원, 도서관 등에 비치
- 기증방법 : 시 국제협력관실에 제출
 - ※ 필요한 경우 시 국제협력관실(중국교류팀)과 별도 협의 가능
-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중국교류팀 ☎ 440-2832~3

2008년 교통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합니다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 아시안게임 등 인천도시브랜드를 겨냥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합니다.

■ 운동추진기간

- 홍보·계도기간 : 2월 1일(금)~3월 31일(월)
- 단속강화 : 4월 1일(화)~연중

■ 중점추진대상

- 무면허·음주운전등 대형사고 유발행위
- 교차로 꼬리물기·정지선위반·끼어들기 등 암체운전
- 과속·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사고 요인행위

■ 문의 : 인천지방경찰청 ☎ 433-0112

인천중부경찰서 ☎ 764-5641

3월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전립선비대증 검사

- 검진기간 : 3월 10일(월)~3월 14일(금) 5일간
- 검진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비뇨기과)
- 검진대상 : 인천시민에 한함
 - ※ 신분증(혹은 장애인 및 의료 급여 카드)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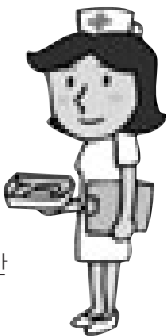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사항목 : 전립선특이항원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 검진인원 : 50명

2. 체지방검사

- 검진기간 : 3월 17일(월)~3월 21일(금) 5일간



- 검진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2층(가정의학과)
- 검진대상 : 인천시민에 한함
 - ※ 신분증(혹은 장애인 및 의료 급여 카드)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사항목 : 체지방 검사
- 검진인원 : 100명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 580-6652

2008년도 국가자격시험 안내

2008년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시험일정을 다음과 같이 사전안내 공고 합니다. 아울러 자격별 세부 시행계획 공고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앙일간지 및 우리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격명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경비지도사
1차시험 접수	8. 4~8. 13	8. 18~8. 27	10. 13~10. 17
1차시험 시행일	9. 7(일)	10. 26(일)	11. 9(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10. 15(수)	11. 26(수)	12. 17(수)
2차시험 접수	1·2차 동시 접수·시험 시행·발표	1·2차 동시 접수·시험 시행·발표	1·2차 동시 접수·시험 시행·발표
2차시험 【3차시험】 시행일			
2차시험 【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 ※ 위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개별법령이 정한 기간내에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 시 중앙일간지와 공단 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 위 종목 이외의 공인노무사 등 18개 자격의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및 2008년도 주요 변동·안내사항(응시원서접수 방법 등)은 우리공단 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www.q-n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검정3팀

☎ 820-8642~3

문학경기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안내

문학경기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프로그램	운영장소	운영시간	강습요일	비고
유소년축구클럽	보조경기장	1월~12월 저학년반 : 17시~19시 고학년반 : 17시~19시	월, 수 화, 목	월 50,000
주부자전거교실	야구장 주변	3월~12월 오전 : 10시~12시	월~금 (10일 2주)	초급 20,000 중급 30,000
복학기공 (단학기공)	보조경기장	4월~10월 새벽 : 6시~7시	월 ~ 금	무료
보조경기장트랙 및 체육공원 무료 개방 (잔디사용금지)		하계(3월~10월) 05:00~23:00 동계(11월~2월) 06:00~23:00	연 중	

- ※ 자세한 내용은 문학경기장 '홈페이지(http://www.munhak.or.kr) 메인화면→프로그램 안내→생활체육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 : 문학경기장사업단 운영팀 ☎ 456-3020, 3024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4가지 유형

■ 횡단보도 서행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유형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딪치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는 운전자 형사처벌이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평소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잘 지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고속주행 중 급제동으로 후미차량에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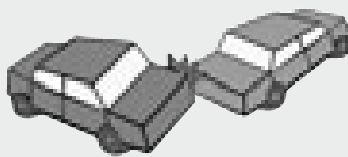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가의 외제차량이나 차에 타고 있는 몸이 불편한 환자를 이용하여 급 가속하다가 고의로 급제동하여 자기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 당한 뒤 고액의 보합금을 요구한다. 따라서 고속주행 중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운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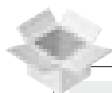
■ 차로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는 유형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는 발생 장소에 따라 중대법규위반 사고가 되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다. 차선변경이나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는 절대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 음주운전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유형

유형가 골목에서 여러 명이





info box

한 차에 탑승해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협박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는 음주 운전자가 인사사고를 내면 형사 처벌되고 보험 보상과 상관없이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음주상태에서는 주차도 하지 말 것이며 시동을 켜 채 차 안에서 쉬거나 잠을 자지도 하지 말아야 한다.

■ 자료제공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 ☎ 830-6162

애견보험 가입안내

■ 애견보험 주요 보장내용

- 통원치료비 : 애견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물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 ※ 다만, 상해·질병 발생일로 부터 365일 이내만 보상

- 입원치료비 : 애견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다만, 상해·질병 발생일로부터 365일 이내만 보상

- 배상책임 : 애견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시

- 애견장례비 : 애견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여 장례를 시행한 경우

■ 애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가입대상은 가정에서 사육되는 애견으로 생후 6개월 이상 8세 이하이며 정기검진, 예방접종, 구충제 복용을 마친 애견. 단 매매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와 구조견 등 특수한 목적의 개,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 등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

- 보험 청약시에 애견명, 생년월일, 견종, 체중, 성별(임신여부, 불임·거세 여부 및 병원), 분양·구입처 등을 기재해야 함
-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공보실 홍보팀 ☎ 02-3771-5907

프로야구 홈경기 연간회원을 모집합니다

우리시를 연고로 하는 SK와이번스 프로야구단이 2000년 창단이후 2007 시즌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에서 시민과 팬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 첫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8 연간회

원을 모집합니다.

■ 판매기간 : 1월 28일(월)~3월 20일(목)

■ 회원권 종류 : 내야석 일반 : 12만원 / 내야석 주말 : 9만원 / 내야석 청소년 : 6만원 / 의자지정석 : 22만원 / 탁자지정석 : 40만원

■ 회원 특전

- 연간회원권 구매자 전원예 2008 시즌 팬북 제공
- 회원카드 발급 및 지정 좌석(의자, 탁자 지정석) 부여
- 탁자석 구매시 음료서비스 및 자리정돈 서비스 제공
- 각종 구단 행사시 참여 우선권 부여
- 복잡한 매표 절차 없이 전용 출입구를 통한 빠른 입장
- 연간회원의 날 이벤트 진행 및 팬 서비스 물품 우선 제공

■ 단체구매 및 연간회원권 관련 문의 : SK와이번스

☎ 455-2622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안내

(2008. 1. 1 기준 / 단위:원)

직 종	구 분		근무시간		임 금
가사도우미	일반가사도우미	40평 미만	4시간	09:00~13:00 14:00~18:00	25,000
		40평 이상	8시간	09:00~17:00	40,000
			4시간	09:00~13:00 14:00~18:00	30,000
			8시간	09:00~17:00	50,000
	입주, 대청소	40평 미만	8시간	09:00~17:00	50,000
		40평 이상	8시간	09:00~17:00	60,000
	김 장 상가집	8시간	09:00~17:00		50,000
		24시간			150,000
간병인		12시간			40,000
		24시간			55,000
산후도우미		기본 4시간 이상		시간당 5,000원	
베이비시터		기본 4시간 이상		시간당 5,000원	
출장요리	20명 기준	하 루			11만 (주요리사-7만 보조요리사-4만)
폐백	기본 4가지	하 루			300,000
도배	기술자 중간 보조	하 루			10만~12만
					7만~9만
					4만~6만

※ 근로여성 자격관리 : 건강검진 필, 보증인 설정,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근로 회원으로 관리

■ 구인예약

- 가사도우미 : 하루 전 오전 9시~오전 12시까지
- 간병인, 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 : 1주일 전
- 폐백, 도배, 출장요리사 : 1주일 전

■ 문의 : 여성복지관 직업안정팀 ☎ 440-6552~4

인천사이버교육센터 교육받으세요

인천사이버교육센터(http://www.cyber.incheon.kr)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분야의 초·중·고급 외국어과정과 정보화·IT자격증대비 교육, 안전·교양분야, 행정실무 등 총 150개 과정의 사이버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및 학습기간

과정명	수강신청기간	학습기간	신청가능과주	승인방법
외국어분야	매월1~10일	최대 2개월 (신청일-다음달 말일)	3개 과정	과정별 수강 제한
정보화분야	"	"	제한 없음	인원 내에서 선착순 마감
공인중개사	"	"	6개 과정	
교양·행정실무	상시	1개월	제한 없음	

- 수강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로그인(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분은 회원가입 필요)→상단의 메뉴(외국어, 정보화, 공인중개사 등) 클릭 맛보기, 이용안내를 통해 과정에 대한 안내 숙지→수강신청 메뉴 클릭, 원하는 과목 체크 후 수강신청 버튼 클릭
- 학습방법 : 로그인→수강신청→마이페이지→나의 강의실→수강 중인 과정에서 해당 과목명을 클릭해 학습(24시간 교육 가능)
- 교육과정

- 외국어분야 : 생활영어, 토익, 문법, 작문, 어휘, 중국어회화, HSK, 일본어회화, JPT 등
- 정보화분야 : 한글2002, 엑셀2003, 파워포인트2003, 인터넷활용, 홈페이지제작, 포토샵, 일러스트 등
- 공인중개사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공법, 부동산세법
- 자격증분야 : 워드프로세스 2·3급, 컴퓨터활용능력 2·3급, 정보검색사 2·3급 등
- 안전분야 : 안전한생활, 어린이 안전교육, 응급처치실기실습 등
- 교양분야 : 자원봉사자 기초·전문교육, 사이버아시아여행, 인천안내, 수화교육, 한자능력시험 등
- 행정분야 : 민원실무, 예산실무, 회계실무, 행정법실무, 민법

총칙, 헌법 등
■ 문의 : 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학과 ☎ 440-7674

제21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수봉공원의 자연 속에서 우리의 전통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 인천예총 국악회관에서는 제21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강좌내용 : 가야금, 대금, 단소, 피리, 거문고, 해금, 태평소, 민요·장구, 판소리, 모듬북, 풍물, 한국무용

■ 강좌기간 : 3월 24일(월)~6월 14일(토)

■ 접수기간 : 2월 25일(월)~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FAX, TEL접수

■ 문 의 : ☎ 876-8364~5, (FAX) 876-8367

www.kukakhall.co.kr (검색창에서 국악회관을 입력하세요)

인천의 산줄기를 찾아서 떠난다

예로부터 인천은 성주산~만월산~철마산~원적산~천마산~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경계로 해서 부평과 인천생활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산줄기를 한남정맥이라 하는데 백두대간의 속리산에서 시작된 한남금북정맥이 안성칠장산에서 다시 금북정맥과 갈라진 것입니다. 한남정맥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중요한 생태·문화축으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며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역사의 현장입니다. 인천녹색연합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한남정맥의 주요 산들을 찾아가는 시민탐사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 모집기간 : 3월 20일(목)~

■ 참가비 : 1회당 2만원(간식과 점심은 개인준비)

■ 문 의 :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 548-6274, 011-630-3437

	날짜	산이름(위치)	코스(km)	정맥
1차	3월 23일	속리산(1058m, 총북보은)	대목리~속리산 천황봉~갈목재 (13)	한남금북
2차	4월 27일	좌구산(659m, 총북 청원)	분전치~좌구산~칠보산~송치재 (12)	한남금북
3차	5월 25일	보현산(481m, 총북 음성)	행치고개~큰산~보현산 (15)	한남금북
4차	6월 22일	칠현산(516m, 경기 안성)	녹배고개~칠현산~칠장사 (12)	3정맥분기점
5차	7월 27일	석성산(471m, 경기 용인)	역조고개~석성산~할미성 (10)	한남
6차	8월 24일	광교산(582m, 경기 수원)	버들치고개~형제봉~광교산 (12)	한남
7차	9월 28일	수리산(469m, 경기 시흥)	능내터널~수리산슬기봉~수암봉(13)	한남
8차	10월 26일	계양산(395m, 인천 계양)	천마산~중구봉~계양산 (10)	한남
9차	11월 23일	문수산(376m, 경기 김포)	쌍용대로~문수산~보구곶리 (10)	한남
10차	12월 21일	혈구산(466m, 인천 강화)	낙조봉~고려산~혈구산~내가고개(13)	

- ### ■ 지원대상자
- 생활자금 대출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 재활 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 피부양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장학금 : 성적우수장학생(매년 3월, 9월 신청) 특기장학생(매년 3월 신청)
- ### ■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금액 이하
 - 재산 : 가구당 재산 7,000만원 이하(웅진·강화군 6,500만원 이하)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 지원금액

지원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0세부터 18세미만의 유자녀(幼子女)	월 20만원/인	18세가 되는 달까지 (고교재학의 경우 20세가 되는 달)
재활보조금 지급	1~4급 중증후유 장해를 입은 사람	월 15만원/인	1년 단위로 지원하 며, 기간 만료후 재 심사하여 계속 지원
피부양보조금 지급	65세 이상의 피부 양노부모	월 15만원/인	"
장학금	중학생	분기별 20만원/인	성적장학금 (3월 신청- 4월, 5월) (9월 신청-10월, 11월)
	고등학생	분기별 30만원/인	특기장학금 (3월 신청-4월, 5월, 8월, 11월)

■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수시(토요일, 공휴일 제외,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
을 접수일로 함), 장학금은(3월, 9월)
- 상담 및 신청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www.kotsa.or.kr)
☎ 080-749-749-7171, 833-6700 문선희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예비부부교육 열립니다

- 일시 : 3월 15일(토), 3월 22일(토), 3월 29일(토)
- 대상 : 예비부부, 이성커플 10쌍 20명
- 내용 : 자기이해, 양성평등한 부부관계 만들기, 의사소통 다루기, 즐거운 성생활


- 참가비 : 2인 10,000원
■ 문의 :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팀 ☎ 569-1545
<http://icseogu.familynet.or.kr>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초록 텃밭 분양합니다

계양산의 정기가 흐르는 비옥한 땅에 인천녹색연합 텃밭을 마련합니다. 당신이 가꾸는 땅 한평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건강하게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평화로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화색 콘크리트 아래서 신음하는 이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 텃밭장소 : 계양구 장기리(플래카드를 달아놓겠습니다.)
- 분양 면적 : 1가구당 10평(분양입금 계좌잔액순 100가구)
- 첫모임 : 3월 22일(토) 오후 2시(인천녹색연합 사무실함께 모여 땅살림 농사짓는 법에 대한 강의 후 텃밭으로 이동합니다.
- 준비물 : 삽, 괄이, 목장갑, 호미, 마실물과 편한복장
- 텃밭분양가 : 1가족 10평 인천녹색연합 회원 30,000원
초록동무, 계논 회원 혹은 일반시민 50,000원
- 분양금 입금계좌 : 농협 146-01-111061 예금주 인천녹색연합
- 문 의 : 인천녹색연합 ☎ 548-6274

[illegible]



충성~ 닥의 자녀 군대에 있습니까?

〈굿모닝인천〉으로 고향 소식을 전해주세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인천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의 소식을 군대에 간 자녀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저희에게 신청하십시오.
 저희가 매월 우편으로 〈굿모닝인천〉을 군부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 신청기간 : 4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전화 ☎ 440-2070 또는 〈굿모닝인천〉 홈페이지
 (<http://goodmorning.incheon.go.kr>) 에 자녀의 이름과 부대 주소를 알려주세요.

우리고장을 빛낸 국가 유공자 **신흥식** 목사 (1872. 3. 1 ~ 1939. 3. 18)



20일 이인환의 집에 모여 서울과 각 지방에서 동지를 모아 일본정부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키로 협의하고 기독교 대표로 서명

날인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경 인사동 태화관에 손병희 등과 함께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경시청총감부에 구금되었다가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인천에서 종교활동과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39년 3월 18일 영면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자료제공_인천보훈지청 ☎ 430-0125

One of the beautiful parks in Korea



Visitor : Can you take me to Incheon Grand Park, please?

Taxi Driver : Of course! Is this your first time in Incheon?

Visitor : Yes, I heard that Incheon Grand Park is a beautiful place to visit.

Taxi Driver : Yes, it is. It is a great place to go for a walk or have a picnic.

Visitor : Do you know of any special events that are held at Incheon Grand Park?

Taxi Driver : Absolutely! Every April there is a Cherry Blossom festival.

Visitor : That sounds amazing! I will have to come back in April. Thank you very much.

Taxi Driver : You're welcome.

방 문 객 : 인천대공원까지 가주시겠습니까?

택시기사 : 물론이죠! 인천에 처음 오셨습니까?

방 문 객 : 네, 저는 인천대공원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택시기사 : 네, 맞습니다. 산책이나 소풍하기에 매우 좋은 곳입니다.

방 문 객 : 인천대공원에서 열리는 특별한 행사에 대해 아시나요?

택시기사 : 그럼요! 매년 4월에 벚꽃 축제가 열린답니다.

방 문 객 : 와~ 굉장하군요! 4월에 꼭 다시 한번 와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택시기사 : 천만에요.



글 · Stephen Amatucci
인천영어마을(www.icev.go.kr) 강사

The Incheon Grand Park, Incheon is one of the beautiful parks in Korea. The park is never short of visitors whether it is the weekdays or the weekends. The park is extremely exceptional in itself. The trees which are surrounded all over the park helps the visitors to breathe freshly always and every time. The park holds meaningful events all round the year. These events help the park to increase its popularity amongst the masses.

인천에 위치한, 인천대공원은 한국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 중 한 곳입니다. 인천대공원은 주중이나 주말 할 것 없이 늘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천대공원은 그 자체 만으로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공원 전체에 무성한 나무들이 많아 방문객들은 언제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대공원에는 1년 내내 중요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런 행사들로 인해 인천대공원은 일반대중들의 인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침탈의 증거, 표지석

조계는 조약에 의해 한 나라가 그 영토의 일부를 한정하여 외국인의 거주와 영업을 허가한 땅을 가리키는 말로, 조계를 설정한 나라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지역이다. 구한말, 인천에는 자유공원 서쪽에 3개의 조계가 설치되었다. 중구청은 중심으로 한 7천평이 일본전관조계(1883), 그 북쪽으로 5천평이 청관전관조계(1884), 두 조계를 에워싼 14만평(1884)이 7개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각국공동조계로 설치되었다가 1914년에 폐지되었다. 조계는 서양인, 신문물, 신종교 등이 들어오는 관문 이었고,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진 격동의 장소였다. 각국조계석은 각국공동조계와 조선인거주지역을 구획하는 표지석으로, 인천성공회 성당 정문 부근에 있던 것을 시립박물관으로 이전한 것이다. 🐦